

고령화 세상에서의 함께 가기  
(국제사회보고서2023)

Leaving No One Behind In An Ageing World  
(World Social Report 2023)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WORLD SOCIAL REPORT 2023:  
LEAVING NO ONE BEHIND  
IN AN AGEING WORLD

United Nations

**유엔경제사회국**

유엔경제사회국은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글로벌 정책과 국가적 행동 사이의 중요한 연결부서로, 세 가지 주요 상호 연결된 영역에서 활동한다. (1) 유엔 회원국의 공통 문제와 정책 옵션을 검토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범위한 경제, 사회, 환경 데이터 및 정보를 편집, 생성 및 분석한다. (2) 진행 중이거나 새롭게 떠오르는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행동 방침에 대해 정부 간 기구에서 회원국의 협상을 촉진한다. (3) 유엔 회의 및 정상 회담에서 개발된 정책 프레임워크를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해 관심 있는 정부에 조언하고 기술 지원을 통해 국가 역량 구축을 돕는다.

ST/ESA/379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23.IV.2

ISBN 978-92-1-130458-9

eISBN 978-92-1-001968-2

Copyright © United Nations 2023

**All rights reserved**

## 1. 서문

세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한 가지 주요한 추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진행 중인 고령화를 향한 변화이고, 이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향후 30년 동안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2050년에는 16억 명에 달하여, 이 때 노인은 전 세계 인구의 16%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들은 더 오래,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인간 평균 수명의 증가는 위생 및 의료 치료 개선, 교육 및 가족계획에 대한 접근성 향상, 성 평등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으로 이끌어낸 성공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인구연령구조의 변화는 젊은층이 많은 국가와 노인층이 많은 국가 모두에서 현재의 노인 지원 방식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사회의 건강과 부가 계속 발전하면서 노년층의 의존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점점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효과적인 노후지원시스템과 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세대 간의 연대는 여전히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수명 연장을 이끄는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점차 심화되는 불평등 수준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정의하는 특징이 될 위험이 있다. 고용과 임금에 대한 극심한 위기의 장기적인 추세로 인해, 지속적인 건강 및 교육 개선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다음 세대는 점점 더 불평등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및 조치가 없다면, 미래의 노인 집단은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불평등할 수 있다. 그러나 불평등의 심화는 불가피한 것은 아니며, 정책 입안자들의 결정으로 미래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사회보고서2023’을 통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기회와 도전을 다루고자 한다.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20주년을 맞아, 본 보고서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한 공평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정책 지원을 다루는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사람들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건강한 나이들을 장려하고 빈곤을 예방하며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촉진하는 정책은 경제 안정성을 강화하고 노인들 사이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아온 노인, 여성, 그리고 기타 그룹들의 기술, 전문성, 지식을 활용하면 형평성을 촉진하고 노인지원시스템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사회보고서2023’의 핵심 메시지는 인구 고령화와 이에 대응하는 역사적인 세계적 추세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이 2030지속가능발전 의제에 포함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오늘날의 불평등을 해결하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관리하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고령화된 세계에서 세대 간 공정성에 관한 문제는 2023년 지속가능한발전목표 정상회의와 2024년 미래 정상회의를 위한 중심 주제로 부각되어야 한다.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며,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때이다. 오늘날 젊은 층과 노년층, 그리고 현재와 미래 세대 간의 연대를 강화해야 할 때이다.



**Li Junhua**

Under-Secretary-General for Economic and Social Affairs<sup>[1]</sup> United Nations

## 2. 일러두기

국제사회보고서는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사회발전 문제에 대한 주요 간행물이다.

2023년 보고서는 나비드 하니프(Navid Hanif)의 지도하에 인구부의 존 윌머스(John Wilmoth), 사회개발부의 다니엘라 바스(Daniela Bas), 경제분석 및 정책부의 산타누 무크허지(Shantanu Mukherjee)가 이끄는 팀이 작성했다. 보고서의 팀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리나 바사르스키(Lina Bassarsky), 호르헤 브라보(Jorge Bravo), 단난 구(Danan Gu), 크리스틴 스텔 헬가손(Kristinn Sv. Helgason), 젠키안 황(Zhenqian Huang), 이스마엘 이시푸(Ismael Issifou), 케네스 이버슨(Kenneth Iversen), 마렌 히메네스(Maren Jimenez), 유미코 카미야(Yumiko Kamiya), 다이스케 마루이치(Daisuke Maruichi), 조나단 페리(Jonathan Perry), 줄리 피윳(Julie Pewitt), 마르타 로이그(Marta Roig), 카롤린 슈미트(Karoline Schmid).

보고서에 포함된 분석은 피터 로이드-셔록(Peter Lloyd-Sherlock), 이상협(Lee Sang-Hyop), M. 마흐드 칸(M. Mahmud Khan), 레누가 나가라잔(Renuga Nagarajan), 장-마리 로빈(Jean-Marie Robine)이 준비한 논문의 도움을 받았다.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에 기반을 둔 Gateway to Global Aging Data 팀은 배경 문서와 데이터 분석을 제공했다. 할 살즈먼(Hal Salzman) 교수의 지도하에 러트거스 대학교의 Edward J. Bloustein School of Planning and Public Policy의 대학원생 그룹은 스튜디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고서에 대한 배경 연구를 준비했다.

초기 초안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준비하는 동안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제니퍼 에일셔(Jennifer Ailshire), 데보라 카(Deborah Carr), 카를로스 그라딘(Carlos Gradin), 에밀리 그런디(Emily Grundy), 테레사 문지(Teresa Munzi), 요르그 뉘크스웬더(Jorg Neugschwender), 워렌 샌더슨(Warren Sanderson) 및 앤드류 스콧(Andrew Scott)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보고서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내부 검토 과정에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준 아말 아부 라페(Amal Abou Rafeh), 회와이 재키 정(Hoi Wai Jackie Cheng), 줄리아 페레(Julia Ferre), 니콜 헌트(Nicole Hunt), 알렉스 훌카(Alex Julca), 코넬리아 칼더바이(Cornelia Kaldewei), 마르셀로 라플러(Marcelo LaFleur), 팀 밀러(Tim Miller), 웬얀 양(Wenyan Yang), 그리고 DESA 동료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보고서는 Gretchen Luchsinger가 편집했다. Blossom은 모든 텍스트, 표 및 그림의 표지 디자인과 최종 레이아웃을 제공했다.

# 목차

일러두기 .....	4
참고사항 .....	10
핵심요약 .....	12
서론 .....	21
<b>1장. 나이 들어가는 세계 .....</b>	<b>25</b>
A.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 .....	26
B. 지속적으로 상향이동되고 있는 인구연령 분포 .....	29
C. 보다 정밀한 측정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	33
1. 노년의존도에 대한 역사적 관점과 예상 노년 부양비 비교 .....	33
2. 경제적 관점에서의 나이듦 측정 .....	35
D.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주요 요인은 늘어난 수명과 핵가족이다. ....	37
<b>2장.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향해 .....</b>	<b>41</b>
A. 수명 연장은 인류의 성공적 역사이다. ....	42
B.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여성 .....	45
C. 건강한 나이듦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들 .....	46
D. 오래 산다고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니다(특히 여성의 경우). ....	47
E. 건강과 기대수명의 차이는 여러 불평등 요인과 얽혀있다. ....	49
F. 조기 사망은 감소했지만 아직 미래는 불확실하다. ....	50
<b>3장. 인구 고령화가 경제와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b>	<b>52</b>
A. 우리는 나이듦 이슈에 직면해 있고 도전을 받고 있다. ....	55
1. 두 가지 인구배당효과를 통해 더 큰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 ....	55
2. 나이듦은 생산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	57
3.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소비패턴이 변화한다. ....	59
4. 노년층의 소비 재정은 자원 재분배에 달려 있다. ....	63
5. 시간 경과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적응 .....	67
B. 고령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소비 및 생산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	69
1. 여성과 고령 노동자는 노동시장에 가치를 높인다. ....	69
2. 노동 생산성 향상은 기술 투자에 달려있다. ....	70
3. 기술 혁명의 잠재력 활용 .....	72
4. 출산율 지지 정책은 여러 결과를 가져온다. ....	73
5. 국경을 넘어서: 새로운 투자 흐름을 위한 원동력 .....	75
C. 신중하고 적절한 정책은 성공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	75

<b>4장 현재와 미래의 나이듦, 빈곤, 불평등 .....</b>	<b>76</b>
A. 노년기의 빈곤, 불평등, 배제: 스냅샷 .....	77
1. 빈곤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	77
2. 노년기에 불평등이 증가해서는 안된다. ....	83
3. 노후를 위한 저축은 여러 위험요소를 상쇄할 수 있다. ....	84
4. 성별 격차로 인해 나이든 여성은 더 가난해진다. ....	84
5. 노인을 배제하는 다른 요인들 .....	87
B. 생애주기 동안 증가하는 불평등 .....	88
1. 노인들 사이의 건강 격차는 이른 시기에 시작된다. 이러한 차이의 핵심은 교육이다. ....	89
2. 고용은 건강을 향상시키거나 해칠 수 있다. ....	91
C. 고령화의 미래: 불평등의 심화 .....	93
1. 세대를 초월하는 고용위기 .....	93
2.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 .....	97
3.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 노동시장의 변화 및 전망 .....	98
D.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불평등 감소와 보호 제공하기 .....	100
1. 노년의 건강악화 근절하기 .....	100
2. 적절한 연금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	102
3. 누진 과세의 가능성 .....	107
<b>5장 돌봄의 위기 .....</b>	<b>109</b>
A. 고령화는 급속화되지만, 돌봄은 그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 ....	111
1. 돌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111
2. 변화하고 있는 돌봄 현황 .....	112
B. 더 나은 돌봄 제공을 위한 요소, 현황 및 과제 .....	114
1. 적절한 장소에서의 나이듦 .....	114
2. 거주형태는 돌봄의 형식을 결정한다. ....	115
3. 돌봄 수요는 돌봄의 공급보다 크다. ....	117
C.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장기돌봄의 취약한 부분이 나타난다. ....	126
1. 시설 내에 밀집되어 있는 노인의 취약성 증가 .....	126
2. 장기돌봄인은 이미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다. ....	127
D.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보다 공평한 관리와 결정이 필요하다. ....	128
1. 돌봄의 질 및 조건 개선 .....	129
2. 장기돌봄에 대한 투자 .....	129
3. 에이징 인 플레이스 .....	130
4. 더 나은 돌봄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 .....	131

## 박스

<박스 1> 인구 고령화와 연령 관련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 찾기 .....	14
<박스 1.1> 대체출산율의 의미 .....	39
<박스 1.2> 국제적 이주는 인구 고령화를 늦추거나 가속화시킬 수 있다. ....	39
<박스 1.3> 저출산 우려 국가의 출산 장려를 위한 세금공제 및 출산 장려금 지급 .....	43
<박스 2.1>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기대수명의 증가를 억제했다. ....	44
<박스 3.1> 무급 돌봄에 대한 회계는 고령화 사회를 다루기 위한 정책에 도움을 준다. ...	68
<박스 3.2> 인구통계학적 전환기의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는 방법 .....	71
<박스 3.3> 일본에서 고령화는 산업을 재편하고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킨다. ....	74
<박스 4.1> 노년 소득 빈곤 측정의 어려움 .....	78
<박스 4.2> 코로나-19와 노인 격리 및 차별 .....	87
<박스 4.3> 장애에 따른 나이들의 차이 .....	91
<박스 4.4> 노인연금제도의 구성요소 .....	103
<박스 5.1> 삶의 마지막 기간에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113

## 그림

<그림 0.1> 1994-2016년 사이의 41개국에서의 평균 노동 소득과 소비의 연령 패턴 ...	21
<그림 1.1> 1980년, 2021년, 2050년 전 세계 및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수 .....	29
<그림 1.2> 전 세계 및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 (1950-2021년 수치, 2022-2050년 예상수치) .....	30
<그림 1.3> 전 연령대의 세계 인구 분포 및 총부양비 (1950-2021년 수치, 2022-2050년 예상수치) .....	32
<그림 1.4> 세계의 전통적 및 잠재적 노년부양비 (1990-2021년 수치, 2022-2050년 예상수치) .....	34
<그림 1.5> 세계의 경제적 노년부양비 (1990-2021년 수치 및 2022-2050년 예상수치) ...	36
<그림 1.6> 인구통계학적 변화 내 연령별, 성별 인구분포, 조출산율 및 사망률, 및 총인구 .....	38
<그림 2.1> 1835-2020년 덴마크의 성별 및 연령별 사망자 수 .....	42
<그림 2.2> 2000-2019년 일부 국가의 60세 이상의 성별 기대수명 및 건강한 기대수명 .....	48

<그림 3.1> 지역별 인구배당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연도(상단 패널) 및 첫 번째 인구배당의 평균 기간(하단 패널) .....	56
<그림 3.2> 2019년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글로벌 경제활동참가율 .....	58
<그림 3.3> 2019년 지역 및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년) .....	60
<그림 3.4> 2005-2016년 30-49세 인구의 소비 수준 대비 연령별 1인당 소비량 .....	60
<그림 3.5> 2015년 유럽연합 국가 연령별 소비지출 구조 .....	61
<그림 3.6> OECD 국가의 GDP 대비 건강에 대한 총 연간 지출 .....	62
<그림 3.7> 연령대별 소득원 .....	64
<그림 3.8> 유럽, 아시아 및 미주 지역 일부 국가의 생애주기별 1인당 세금 및 사회적 기여 .....	65
<그림 3.9> 2018-2060년 OECD 32개국의 연금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의 변화 (GDP 대비 비율) .....	66
<그림 3.10> 2020-2050년에 요구되는 연간 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 달성에 대한 세 가지 요인이 미치는 영향 .....	72
<그림 4.1> 2010년 후반, 상대적으로 빈곤한 가구에 거주하는 연령대별 비율 .....	81
<그림 4.2> 2018년 일부 국가의 고령자와 생산연령 간 상대적 빈곤율 차이 .....	82
<그림 4.3> 2018년 일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연령별 지니계수 .....	83
<그림 4.4> 2019년 일부 선진국의 연령별 자산 보유 .....	85
<그림 4.5> 2010년대 후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상대적 빈곤 인구 비율 .....	86
<그림 4.6> 2019년 교육수준별 상대적 빈곤에 처한 노인의 비율 .....	90
<그림 4.7> 2018년 전후 교육 수준, 일부 국가 기능 장애 성인 50세 이상 비율 .....	90
<그림 4.8> 2018년 일부 유럽 국가 및 이스라엘 50세 이상 성인의 기능 장애에 대한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에서 일하는 효과에 대한 교차비 .....	92
<그림 4.9> 연령 및 출생 코호트별 예상 실업률 .....	95
<그림 4.10> 출생 코호트별 청년 노동력 참여율 .....	97
<그림 4.11> 출생 그룹별 지니계수 .....	99
<그림 4.1.1> 2019년 8개 선진국에서 상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보유한 자산의 연령별 유형 .....	107
<그림 4.1.2> 2018년 유럽 50세 이상 성인의 근무이력을 바탕으로 기능장애를 예측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	108



<그림 5.1>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혹은 80세 이상 여성이 병원 및 가정 이외의 기관에서 장기돌봄을 받는 비율 .....	112
<그림 5.2> 집과 병원 이외의 기관에서 장기돌봄을 받는 비율(최근 자료) .....	115
<그림 5.3> 2015년 세계 및 지역별 공식 장기돌봄 노동자의 추정 수 및 부족 추정 수 .....	117
<그림 5.4> 2014년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비공식 장기돌봄 노동자 수 .....	118
<그림 5.5> 모든 가구원의 여성과 남성이 무급 돌봄에 소비하는 시간 .....	119
<그림 5.6> 장기돌봄 정책, 계획, 전략, 프레임워크, 그리고 독립형 또는 통합형 고령화 및 건강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 수 .....	123
<그림 5.7> GDP 대비 장기돌봄에 대한 정부지출 및 가계 직접지급 비율 .....	124
<그림 5.8> 2019년 장기돌봄 및 장기돌봄 병상에 대한 공공 지출 .....	125

**표**

<표 1.1> 1980년, 2021년, 205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	31
<표 2.1> 1950년, 2021년 및 2050년 성별, 세계, 지역 및 소득 그룹별 출생 시 기대 수명 .....	45

### 3. 참고사항

보고서에 쓰인 기호의 의미는 다음 같다.

연도 사이의 붙임표(-)는 시작 연도와 종료 연도를 포함한 모든 기간을 나타낸다(예: 1990-1991). 소수점 이하를 표시하기 위해 마침표(.)를 사용한다.

명시되지 않는 한 달러 기호(\$)는 미국 달러를 나타낸다. 표의 세부 정보와 백분율은 반올림하기 때문에 합계에 반드시 반영되지는 않는다. 원본의 인쇄판이 있는 경우, 인쇄판을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온라인으로 재생산된 유엔 문서는 유엔 공식 문서 시스템에 표시되는 경우에만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다른 유엔 및 비유엔 출처에서 얻은 유엔 문서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자료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이나 진술도 하지 않는다.

약어는 다음과 같다.

ECLAC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GDP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OM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MF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LIS	룩셈부르크소득조사(Luxembourg Income Survey)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PP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SDGs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CTAD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HO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국가, 영토, 도시, 지역에 대한 참고사항

본 보고서에 사용된 명칭과 제시된 자료는 국가, 영토, 도시 또는 지역의 법적 지위 또는 국경 또는 경계의 구분에 관한 유엔 사무국의 의견 표명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국가"라는 용어는 적절한 경우 영토 또는 지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보고서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데이터는 종종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북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6개 대륙 지역에서 집계되는 경우가 많다. 대륙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unstats.un.org/unsd/methodology/m4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역은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류에 기초하여 지리적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참조: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regional-groups/>)

"개발 된" 및 "개발 중"이라는 명칭은 통계 목적을 위한 용어이며,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이 도달한 개발 과정의 단계에 대한 판단을 표현하지 않는다. 선진국은 유럽과 북미의 모든 국가와 지역, 호주, 뉴질랜드, 일본을 포함한다.

개발도상국은 아프리카, 아시아(일본 제외),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오세아니아(호주 및 뉴질랜드 제외)의 모든 국가 및 지역을 포함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확인하라.

<https://www.un.org/ohrlls/content/about-us>

소득 수준에 따른 국가 및 지역 분류는 세계은행에서 보고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소득 그룹은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확인하라.

<https://datahelpdesk.worldbank.org/knowledgebase/topics/19280-country-classification>

## 4. 핵심요약

인구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오래 살며 더 많이 나이듦을 경험하고 있다. 건강과 수명에서의 놀라운 발전과 출산율의 감소는 이 변화의 주요 원인이며, 이로 인해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인구 고령화라는 중요한 현상이 시작되었거나 곧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도전과 기회를 모두 가져온다.

2022년 세계는 나이듦에 관한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채택한지 20주년을 맞았다. 이 획기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사회보고서2023’은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을 탐구한다. 이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국가 정책에 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 계획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며, 노인의 권리와 웰빙을 평생에 걸쳐 중심에 두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

인구 고령화는 수명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노인 중심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되돌릴 수 없지만, 이를 다루는 방법과 정책에 따라 인구 고령화에 다다른 경로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미루면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높은 사회적, 경제적, 재정적, 그리고 건강에 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적절한 예측과 계획을 통해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관리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이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인구 고령화는 특정 연령을 초과한 한 그룹에만 적용되는 개별적인 문제 집합 이상으로 널리 이해되어야 한다. 고령화는 건강 관리와 교육, 고용, 세금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삶의 각 단계는 더 나이든 사람들의 웰빙에 증진하거나 저해할 수 있다.

### **고령화 세계는 성공의 역사이다.**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인류가 공동으로 이룬 이례적인 성공 사례이다. 위생과 의료 치료의 개선, 교육과 가족 계획에 대한 접근성 향상, 그리고 양성평등 및 여성 권리 증진 등은 모두 출산율과 사망률이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하는데 기여했으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발전은 급속한 인구 증가가 서서히 끝나가는 시대를 열었고, 점진적이지만 영구적인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를 동반했다. 수십 년 동안 노인의 수와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 반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와 비율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5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나 16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구 고령화는 유럽과 북미, 호주와 뉴질랜드, 대부분의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노인 비율(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의미)은 전체 인구의 10%를 초과하고, 어떤 경우에는 20%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호주와 뉴질랜드 제외)의 대부분 지역은 아직 이 전환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대부분 국가는 중간 단계에 있다.

전 생애에 걸친 사망률 감소는 전 세계적으로 출생 시 기대수명의 증가를 가져왔다. 수명 연장은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연령대의 축소를 수반한다. 과거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죽음이 흔했다. 예를 들어 많은 어린이들이 전염병으로 사망했고 여성들은 출산 중에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60세 또는 70세 이전의 "조기 사망"은 비교적 드물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기대수명은 근본적인 건강의 개선을 반영한다.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수명 증가는 대부분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통계적 평균은 기대수명의 성별 및 사회 경제적 상태에 따른 차이를 숨긴다. 거의 모든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이러한 차이는 낮은 영양 섭취, 제한된 소득과 교육, 그리고 환경적이고 직업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은 2021-2030년을 '건강한 나이들 10년'으로 지정하였다. 그 목적은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노인 복지를 지원하는 전략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노인의 기능적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각 개인의 고유한 능력, 주변 환경, 그리고 둘 사이의 상호 작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건강한 나이들 10년' 계획은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을 기반으로 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시기와도 일치한다.

## **인구 고령화는 경제적 보상과 도전을 이끌어낸다.**

경제적 생산과 소비의 수준은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삶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소비 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하여 부양 자녀와 그들에게 의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노년기에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잉여를 창출한다. 인구학적 변화는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먼저 증가한 다음 감소하는 변화를 보여준다. 초기 증가는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이 낮아짐으로 인해 발생한다.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인 규모의 감소는 고령자 비율의 급속한 증가에 의해 나타난다.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할 때 국가는 보다 빠른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배당"을 달성하는 것은 교육과 보건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것, 그리고 빠르게 증가하는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비와 생산 패턴이 변화하고, 노인들은 인구통계학적 전환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한다. 많은 노인들은 유급 노동을 계속하고, 가족 내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경제적 지원이나 보육을 지원한다. 그러나 노년 부양비와 같은 표준 인구통계학적 지표는 이러한 요인을 반영하지 않는다(박스 1). 게다가 많은 노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기여를 제한하는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의 연령 기반 차별은 그들의 완전한 경제 참여를 악화시킨다.

노인들은 그들이 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노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마련이다.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연금, 건강 관리 및 장기돌봄 비용의 증가로 인해, 노인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도전에 직면한다. 특히 연령 그룹 간에 자원을 분배할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없는 경우 더욱 그렇다.

노인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자금 조달 방법은 국가마다 다르다. 보다 발전된 지역에서는 연금 및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공공 이전 시스템이 노인 소비의 3분의 2 이상을 제공한다. 반면 저개발 지역에서는 노인들이 더 오래 일하고 축적된 자산이나 가족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인구 고령화로 접어들 국가들은 노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노동시장과 연금 및 의료시스템에 적응하고 혁신하는 적극적이고 유망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낮은 출산율은 가족과 사회가 자녀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 긴 수명을 기대하여 더 높은 수준의 개인 저축은 자본 축적, 생산성 증가 및 더 빠른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저축이 생산적으로 투자되는 한 지속될 수 있다.

### **<박스 1> 인구 고령화와 연령 관련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 찾기**

인구 고령화와 연령 관련 의존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척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두 번째는 노년부양비이다. 후자는 노인의 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크기를 비교한다. 그러나 노년부양비는 연령을 절대적 시간으로 정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시간 경과에 따른 노인의 건강과 활동 수준의 변화나 노인의 다양한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노인을 포함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제외하는 비율 계산은 생애주기 동안의 연령 관련 의존도를 불완전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적인 조치가 있다. 예를 들어 총부양비에 젊은 층과 노년층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 다른 척도인 경제적 노년부양비는 인구의 연령 분포 뿐만 아니라 노동 소득 및 소비 수준의 연령 범위에 따른 변동도 반영한다. 또

다른 지표 세트는 출생 후 경과된 시간에서 사망까지 남은 시간으로 기준점을 옮기는 것이다. 또한 몇몇 연구들은 더 나이든 사람들의 건강 관리와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사람의 남은 수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수명이 증가하는 경우, 사망까지의 예상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고령화 관련 사회 및 경제적 비용의 분석 및 예측은 지속적인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재정적 영향에 대한 적절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노년으로 가는 길은 평등하지 않다.**

고령화를 주도한 건강과 삶에 대한 개선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지만, 모든 사람이 이로부터 동일한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많은 노인들이 매우 건강한 반면, 여러 질병이나 심각한 장애를 지니고 사는 노인들도 적지 않다. 일부 노인은 경제적으로 활동적이고 소득의 안정을 누리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난하게 사는 노인들도 있다. 이러한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경제과 건강에 대한 평균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불평등과 요구를 은폐한다.

불평등은 생애 초기에 시작된다. 이를 예방하는 정책이 없다면, 불이익은 사람들의 삶 전반에 걸쳐 서로 강화되어 노년기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된다. 교육과 고용은 노년기를 포함하여 삶의 모든 단계에서 건강 및 경제적 성과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건강과 고용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고용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람들이 하는 일의 유형, 일하는 조건, 그리고 우선 직업이 있는지 여부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사람들의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국가별 조건 및 정책의 중요성을 몇 가지 광범위한 매개변수에 따라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교육 및 의료를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보호 시스템과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필수 서비스를 갖춘 국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는 국가보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노년층의 빈곤을 줄이는 데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노년층은 생산연령층보다 가난한 가정에서 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와 서비스가 잘 확립되지 않고 종종 포괄적이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노년층과 생산가능인구 사이의 빈곤 수준 격차가 훨씬 더 크다.

불평등은 삶의 과정에 따라 진화하고 세대마다 다르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건강하고 더 나은 교육을 받았다. 앞으로 그들은 평균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교육 수준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오늘날 젊은이들은 성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큰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에 직면해 있다. 직업 세계의 심각한 변화는 직업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노동시장 내에서의 격차가 커지면 사람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가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10년을 한 주기로 해서 그 다음 주기에 소득 불평등이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미래 노인 집단 간의 건강 및 기대수명의 격차를 확대 및 촉진할 수 있다. 게다가 광범위한 비공식 고용과 기타 불안정한 형태의 일자리의 증가는 적절한 연금 및 기타 사회보호 혜택에 대한 접근을 위협하여 많은 노인들을 경제적으로 위험에 빠뜨린다. 개선 조치가 없다면, 더 나이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점점 더 불평등해질 것이며 이로 인한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 **성별에 따른 차이는 불평등한 노년을 이끈다.**

노년기의 빈곤 수준은 일반적으로 여성들 사이에서 더 높다. 남성에 비해 공식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가 적고 근로 경력이 짧으며 임금이 낮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나중에 더 큰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길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년 여성은 노년 남성에 비해 배우자 없이 살게 될 가능성이 높고, 재혼할 가능성이 낮으며, 혼자 살 가능성이 더 높다. 이 세 가지 특징은 경제적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여성들은 또한 돌봄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가족 내에서의 돌봄과 가사노동의 불평등한 분배는 여성의 노동 생활을 단축하고 연금 소득을 제한한다. 노동시장에서 대부분의 돌봄 노동자는 여성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제대로 규제되지 않은 돌봄 경제의 비공식 및 공식 부문에서 일한다. 노년 여성은 삶의 마지막에 남성보다 더 오래 살고 연령 관련 장애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장기돌봄이 필요할 가능성이 더 크다.

양성평등은 가족 내 돌봄 의무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여성과 남성이 가사 책임과 노동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 및 노동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노동력 참여를 촉진하고, 인구 고령화와 함께 경제의 생산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참여 증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노년을 포함하여 평생동안 여성의 경제적 안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를 없애고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돌봄 노동을 보다 일관되게 공식 경제에 도입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여성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 **장기돌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8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장기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일반적으로 무급 여성)이 노인의 돌봄 요구를 충족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세대 간 공동 거주가 감소하고 있다. 전적으로



또는 주로 가족에게 의존하는 돌봄 모델은 점점 더 부적절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 지출은 증가하는 장기돌봄 수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지출은 2019년 GDP의 1.5%로 2017년 1.7%보다 감소했다.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돌봄인들이 과소평가되고, 급여가 낮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 훈련된 돌봄인의 부족은 질 낮은 치료로 이어진다. 많은 나라들, 심지어 부유한 나라들도 유급 또는 무급 돌봄인들에 의한 비공식 서비스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특히 장기돌봄 서비스의 기존 약점을 노출시켰고 그러한 약점이 어떻게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질이 낮고 자금이 부족한 돌봄 시스템, 불충분한 가정 돌봄 제공, 유급 돌봄 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 의료 시설 내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프로토콜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수의 노인들이 사망했다. 이번 위기는 장기돌봄의 근본적인 개혁이 절실함을 증명했다.

노인에게 무급 또는 저임금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기여는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 교육 및 지원, 그리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 및 모니터링과 같은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된 장기돌봄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의무적인 공공보험의 도입은 장기돌봄에 대한 부담스러운 본인 부담 비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한다. 돌봄 노동자의 정식 고용 촉진과 근로 조건 개선은 양질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장기돌봄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고하는 것은 오늘날의 노인들과 그들의 돌봄인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노인들과 그들의 돌봄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 **고령화 시대에 같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책과 시행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모든 연령대의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두 가지 행동을 강조한다. 첫 번째는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건강을 유지하고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사람들이 평생 동안 취할 수 있는 정책이다. 두 번째는 연금과 건강 관리를 모두 고려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불평등을 줄이고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구성된다.

### **노인에 대한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출생 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나이가 들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출생 시부터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촉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모든 어린이는 양질의 교육과 건강 관리를 포함하여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노동 시장을 감안할 때 교육은 유년기 또는 청년기 이후에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평생 학습 및 기술 개발을 위한 기회는 노동자가 노동 수요의 변화에 적응하고 신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향상된 교육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빈곤과 불평등을 줄일 수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과 결합될 때만 가능하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의 질도 중요하다. 비공식 부문의 고용은 종종 낮은 노동 생산성, 사회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된 접근, 그리고 공공 수익에 대한 한계 기여로 특징지어진다. 동시에 수십 년 동안의 임금 정체는 저임금 노동자의 노후 대비 저축 능력을 위태롭게 한다.

규제 및 고용 계약에서 단체 협약, 노동 검사 메커니즘, 그리고 포괄적인 사회보호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노동 제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 노동의 공식화가 촉진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며 무엇보다 고령화된 세계에서 사회 계약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비공식 부문을 공식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국가들은 사회 보호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비공식 경제의 모든 노동자로 점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노동의 세계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여성에게 불균형적인 부담을 주고 노동시장에 대한 평등한 참여를 방해하는 가사 노동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고용 및 사회 정책의 중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 육아 휴직에서 공공 보육 서비스 및 부양 자녀 세액 공제에 대한 투자에 이르기까지, 정책은 무급 보육 업무의 공평한 분담을 촉진하고 유급 직장에서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를 포함하여 노동 인구가 많은 국가가 절실히 필요한 자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제 투자에 대한 자극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자본 흐름은 노동 생산성과 임금을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다 빠른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동자 집단과 큰 시장 규모에 의해 창출되는 역사적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와 기술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혁신적인 경제 및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가들은 교육 수준을 높이고 학교 교육 과정이 사람들에게 노동 시장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

### **노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금이 필요하다.**

인구 고령화가 선진 단계에 이른 국가들은 특히 의료 및 연금에 대한 공공 지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자 제안된 일부 연금 시스템 개혁은 전반적으로 적용될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 공적 연금 제도는 고용 패턴의 변화, 특히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와 관련된 불안정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그 이전 위기는 전반적으로 공공 이전을 줄이는 위험을 노출했다. 본 보고서는 불평등을 줄이는데 있어 연금의 역할을 유지 또는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연금 기금과 관련된 재정적 위험을 개인에게 전가하거나 리스크 공동 분담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국가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3을 달성하기 위해 연금 보장 범위 확대, 적절한 혜택 제공, 그리고 공적 연금 시스템에 자금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sup>1)</sup> 연금 보장 범위를 한번에 늘리는 방법은 없지만, 세 가지 조치를 통해 노인들의 재정적 복지를 보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첫 번째는 개인 저축을 장려하고 재정적 소양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모든 노인이 기본적인 소득 보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연금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자금 조달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소득 노동자나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공공 세입을 늘릴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다양한 세금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함으로써, 정부는 예측 가능한 재정 압박에 대비하고 해결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개혁을 채택할 수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비공식 고용에서 공식 고용으로의 전환 촉진, 탈세 방지, 조세 행정 강화를 포함하여 세수 창출 능력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세금 문제에 대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국제 협력에 의해 지원될 필요가 있다.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모든 국가는 노인을 위한 적절한 연금과 돌봄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재 지원 시스템의 장기적인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년층의 미래 세대는 더 불평등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연금 시스템은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하며, 재분배 능력을 약화시키는 개혁은 노인들의 복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이러한 개혁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되면, 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의 역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연령 집단과 세대에 걸친 불평등을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조치를 통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 국가 내에서도 국가 간에 크고 지속적인 빈부격차의 더 넓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나이들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세계는 건강, 경제적 번영 및 사회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한 충격으로 계속 고통 받고 있다. 2년 이상의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회적 및 경제적 회복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곳곳에서 생활비가 오르는 가운데 여러 인도주의적 위기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기후 변화는 심각하고 전례 없는 가뭄과 홍수를 초래하여 전 세계 식량 공급에 압박을 가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

1) 1.3의 목표는 "국가적으로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와 조치를 시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달성하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옵션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포함하는 ‘국제사회보고서2023’은 세계 지도자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계획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 및 정책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위기 이후의 재건과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의 이행은 국가 및 다자간 수준에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책 대응에 달려있다.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인구 고령화 문제를 관리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인식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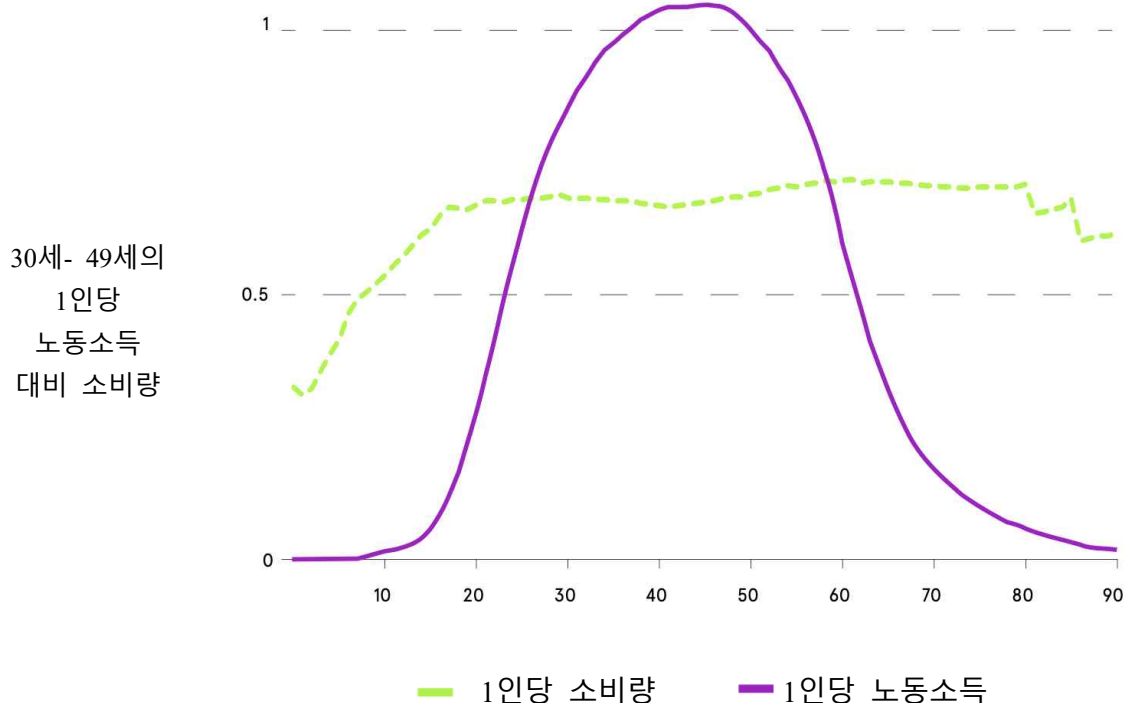
## 5. 서론

우리는 급속한 사회와 경제 변화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21세기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이전 세대와 비교할 때 눈에 띄게 다른 삶의 경험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삶의 조건의 풍부한 변화와 다양성 속에서도 모든 인간 사회의 삶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인구 연령구조의 고령화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변화가 있다.

건강과 수명의 눈부신 향상과 가족 규모와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인구 고령화의 장기적인 과정이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시작되었거나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율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경제, 사회, 환경 차원에서 도전과 기회를 가져온다.

생애 과정에서 사람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많다. 일반적으로, 중간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은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여 부양 자녀나 그들에게 의존하는 다른 이들을 부양하거나, 노후에 스스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잉여를 창출한다(그림 0.1). 이 일반적인 패턴은 사회와 경제 발전의 다양한 수준에서 인구 전체에 걸쳐 유지된다.

<그림 0.1> 1994-2016년 사이의 41개국에서의 평균 노동 소득과 소비의 연령 패턴



출처: 국가이전계정 프로젝트 데이터 사용,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s://ntaccounts.org>

참고: 소비 및 노동 소득의 연령 패턴은 30세에서 49세 사이의 평균 노동 소득과 비교하여 표시된다.

그러나 평균치는 특정 연령에서 나타나는 경험의 다양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일부 생산 연령층의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에 충분한 노동 소득을 창출하지 못한다. 많은 노인들은 건강한 상태로 고령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스스로를 부양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생리적 저하는 생산적인 일에 참여하고 일상 생활의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개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거나 노동 소득을 받지 못할 때 재정적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돌봄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사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인을 지원하고 보살핀다. 전통적으로 가족은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가 사회 계약의 일부로 노인들에게 자원을 이전하고 지원을 제공하는데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해왔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더 오래 살고 핵가족으로의 인구통계학적 전환을 겪고 노인의 수와 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노인이 생산적이고 자신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혁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더 많은 노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적절한 예측과 계획을 통해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가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 **모든 정부는 노인들이 생산적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의 초기 단계에서, 국가는 노동 인구 비율의 증가로 발생하는 1인당 경제 성장의 촉진인 인구 배당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창을 가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질 높은 교육 및 의료서비스에 투자함으로써, 배당금의 잠재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포괄적이며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는 국가의 정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대부분의 경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불행히도 주로 예산 균형에 초점을 맞춘 일부 조치는 필수적인 형태의 사회적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들 사이의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할 투자 기금에 노동자가 기여하는 연금 프로그램을 통해 연금 수령자에게 재정적 위험을 전가시켰다. 대부분 축적된 투자 수익이 수령받는 이익을 결정한다. 이로 인해 개인 수혜자들은 투자 성과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하며, 이는 나중에 불충분한 소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에 대해 낙관적인 이유가 있다. 현재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미래의 근로 연령층과 노년층은 이전 집단에 비해 더 건강하고 더 나은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더 생산적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와 더 넓은 사

회에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잠재력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의 실현 여부는 평생 학습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의료 및 교육에 대한 공공 투자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국가의 노력에 달려 있다. 나이와 관련된 차별과 공식적인 고용에 대한 장벽을 없애는 것은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은 수십 년 동안 국제 사회의 의제였다. 1982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고령화총회에서 인구 고령화가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계적인 문제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20년 후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차 세계고령화총회는 정부가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를 건설"하기로 약속한 획기적인 합의 선언과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채택으로 마무리되었다. 행동 계획은 다음 세 가지 우선 순위에 따라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즉 노인과 발전, 노년기에서의 건강 및 웰빙 향상, 지속가능한 지원 환경 보장이다. 이 계획은 노인들의 기여와 관심을 국제 개발 의제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1994년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은 인구 고령화를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인식하고 정부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노인들이 경제적 및 사회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가족 및 기타 공식 및 비공식 안전망을 통해 건강 관리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행동 프로그램은 특히 노인 여성이 전 세계 노인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노인 여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요구했다.

2000년에 채택된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노인과 노인의 요구 사항 및 사회에 대한 기여를 거의 고려하지 않았지만,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는 균형 잡힌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보편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의 모든 사회계층과 모든 연령층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며, 특히 노년층을 포함하여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2020년 12월 유엔 총회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모두 달성하는데 건강한 노화가 중요함을 인식하고<sup>2)</sup> 2021-2030년을 유엔 건강한 나이들 10년으로 선포했다.<sup>3)</sup> 총회는 인구 고령화의 예측 가능성과 그 가속화 속도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요구를 해결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sup>4)</sup> 유엔 회원국들은 인구 고령화가 건강 시스템과 노동 및 금융 시장, 교육, 주택, 장기 돌봄 및 사회보호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의 많은 다른 측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했다.

---

2)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노년기에 웰빙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과정"으로 정의한 건강한 노화는 WHO가 2002년에 개발한 정책 프레임워크인 능동적 나이들을 대신한다. 건강한 노화는 능동적 노화와 마찬가지로 여러 부문에 걸친 조치의 필요성과 노인들이 가족, 지역사회 및 경제의 자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WHO, 2020a).

3) 총회 결의안 75/131.

4) 2010년 총회는 기존 국제 프레임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와 이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을 식별하기 위해 개방형 고령화 워킹 그룹을 설립했다. 2012년, 총회는 기존 메커니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노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 법적 수단에 포함시킬 주요 요소를 포함하는 제안을 워킹그룹에 요청했다.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20주년을 기념하고 ‘건강한 나이듦 10년’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사회보고서2023’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구 고령화의 사회적, 경제적 함의를 검토한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성, 형평성 및 포용성과 관련된 기회를 활용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옵션을 제시한다.

1장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인구 연령 분포의 변화, 특히 고령 인구의 수와 비율의 급속한 증가를 검토한다. 국가와 지역별로 수준과 추세는 다르지만 세계는 점점 더 긴 수명과 더 작은 가족으로 전환되고 있다.

2장에서는 세계적으로 낮아진 사망률과 증가한 수명에 대한 추세를 설명한다. 데이터는 여러 국가에서 노년기에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3장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인구 변화의 다양한 단계가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다른 영향력 있는 요소에는 경제 구조와 인간과 사회 발전의 수준이 있다. 이러한 역학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더 많은 노인들과 함께 미래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열 수 있다.

4장에서는 평생 동안의 불평등을 조사하고 그것이 노년기의 빈곤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한다. 이 분석은 미래의 노인 집단이 현재의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더 불평등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지금 당장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5장에서는 노인들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장기돌봄 및 지원제도의 약점을 살펴본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오늘날의 노인들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인 집단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 챕터는 정책 입안자들이 돌봄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종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회계에서 누락되는 부문에서 여성과 이민자의 기울어진 역할을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을 피력한다.

모든 국가는 인구 고령화가 가져오는 기회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삶의 모든 단계에서 사람들의 웰빙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선택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빈곤을 최소화하고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생산성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을 강조한다. 핵심 메시지는 국가가 노년기에 형평성이나 경제적 안정을 희생하지 않고도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1장. 나이 들어가는 세계

## 주요 논점

-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7억 6,100만 명에서 2050년 16억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0세 이상 인구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인구 고령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인구로 구성된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수명연장 및 핵가족 경향)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2021년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었다. 2050년에는 이 연령대가 전 세계적으로 6명 중 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젊은 층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생산연령의 성인과 노년층의 비율은 증가한다. 인구 고령화는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의해 확대된다.
- 여러 지역 중에서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향후 30년 동안 노인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유럽과 북미를 함께 간주했을 때, 이 지역의 노인 비율이 가장 높다.
-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인층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비율로 구성된다. 남성의 평균 생존율이 점차 여성의 평균 생존율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수십 년 동안 기대수명의 성별 격차와 노년기 인구의 여성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노년 부양비와 같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기존의 척도는 종종 경제적 부양의 대리 지표로 사용된다. 기대수명 증가 또는 다양한 연령대의 경제적 생산 및 소비 등 다양한 측정을 통해 보다 세밀한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노인의 인구 분포가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세계에 살고 있다. 이 패턴은 세계적으로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과 2050년 사이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10% 미만에서 약 1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동안 노인 인구는 7억 6100만 명에서 16억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United Nations, 2022a). 대부분의 선진국은 수십 년에 걸쳐 인구 고령화를 경험했으며 이미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 속한다. 대조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 장에서는 전 세계 인구 고령화 수준과 추세에 대한 개요를 제시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지표를 건강과 경제적 고려사항을 통해 수정하고, 국가가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할 때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A.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

노인 인구는 1980년 약 2억 6천만 명에서 2021년 7억 6천 1백만 명으로 세 배로 증가하는 등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1.1). 2030년까지 그 수는 10억 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결국 16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 말까지 전 세계 노인 인구는 거의 25억 명에 다다를 수 있다(United Nations, 2022a).

**1980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30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2050년까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 및 남부아시아의 65세 이상 인구는 5억 4천만 명 이상 증가하여, 전 세계 인구 증가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30년 동안,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65세 이상 인구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80세 이상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50년까지 세계의 80세 이상 인구는 약 4억 5천 9백만 명으로 2021년 약 1억 5천 5백만 명보다 거의 3배에 달할 것이다. 2021년에서 2050년 사이에 유럽과 북미,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는 10%, 북미와 호주, 뉴질랜드는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FACTS AND FIGURES FROM CHAPTER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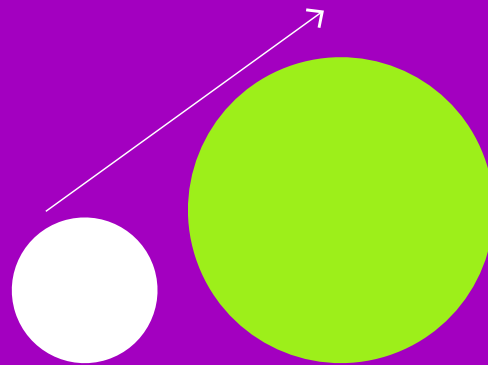
---

## MORE THAN DOUBLE

the number of people aged 65+ will  
MORE THAN DOUBLE from

**761**  
MILLION in 2021 to

**1.6**  
BILLION in 2050



---

## THE 80+ POPULATION IS GROWING FAST

increase expected from

**155**  
MILLION in 2021

to

**459**  
MILLION in 2050

---

# SOCIETIES WILL BE OLDER

from 1 in 10 people 65+



in 2021

to 1 in 6 people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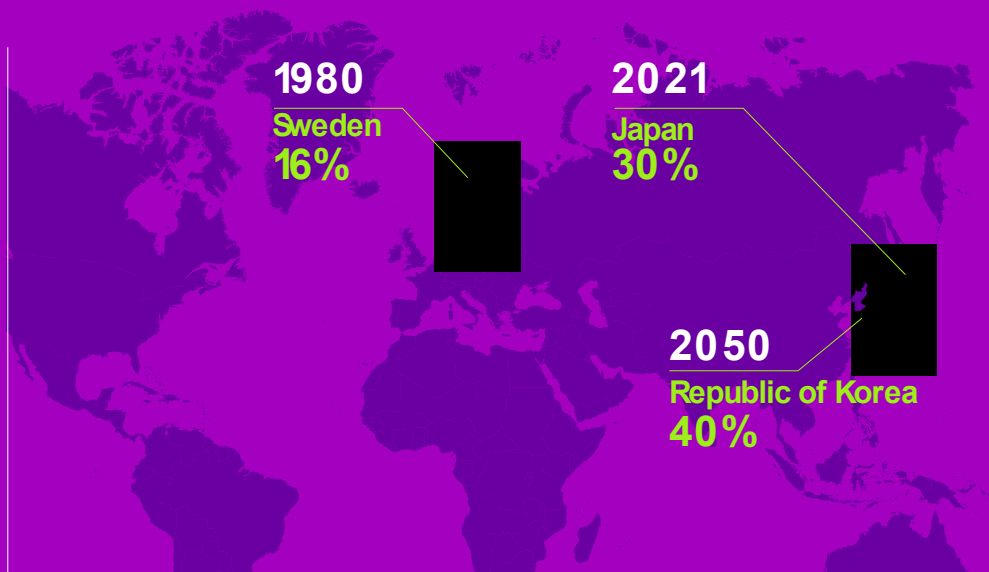


in 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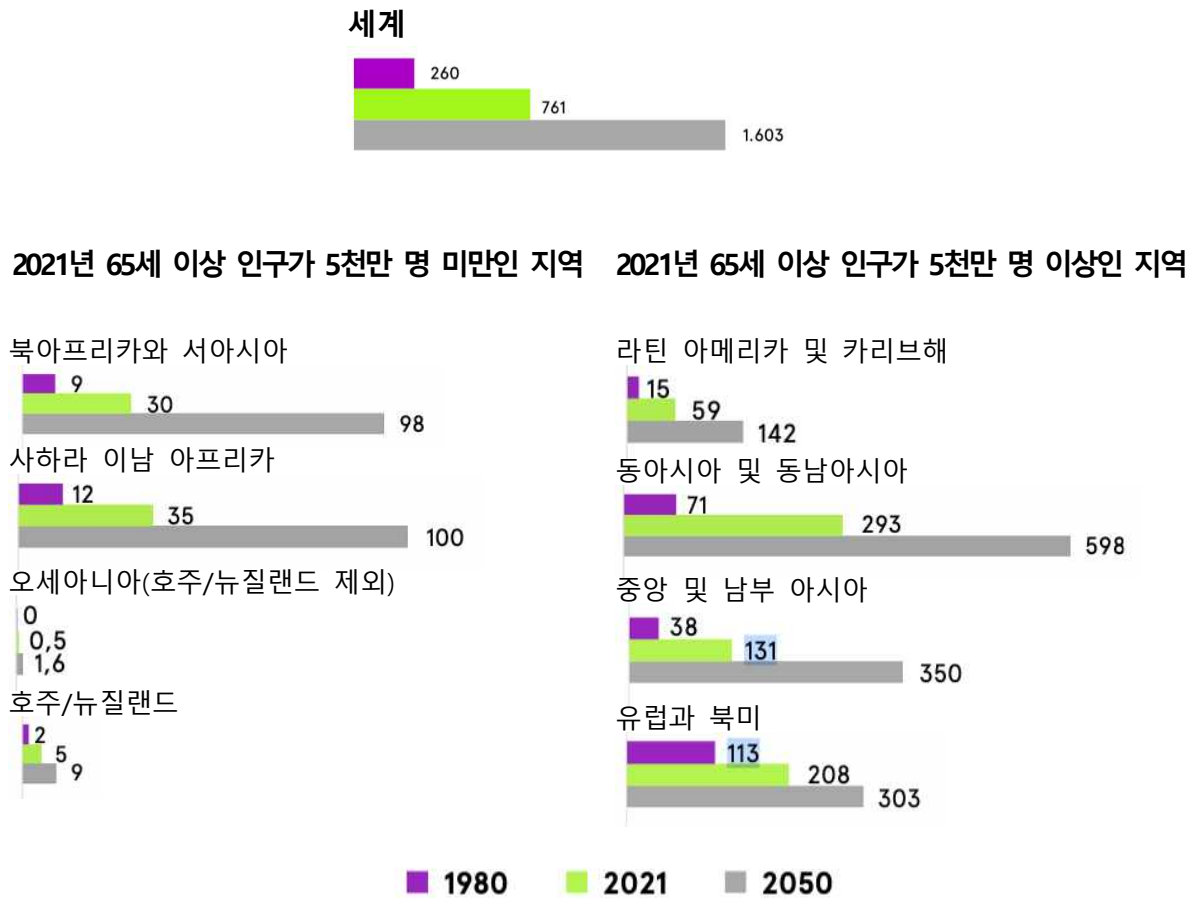
# THE GEOGRAPHY OF THE WORLD'S OLDEST COUNTRIES AND TERRITORIES IS SHIFTING

from Europe towards Eastern and South- Eastern Asia by 2050

World's oldest country or territory (with the largest share of people 65+)



<그림 1.1> 1980년, 2021년, 2050년 전 세계 및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수



출처: United Nations (2022a).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노인층에서는 노인 여성이 더 높은 비율로 구성된다. 2021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5.4년 더 오래 살았고,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의 56%를 차지했다. 80세 이상 노인 중 여성 비율이 62%에 이른다. 남성의 생존율이 점차 점차 여성의 생존율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년층의 성별 분포는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년에는 65세 이상과 80세 이상의 노인 여성이 더 높은 비율(각각 54%와 59%)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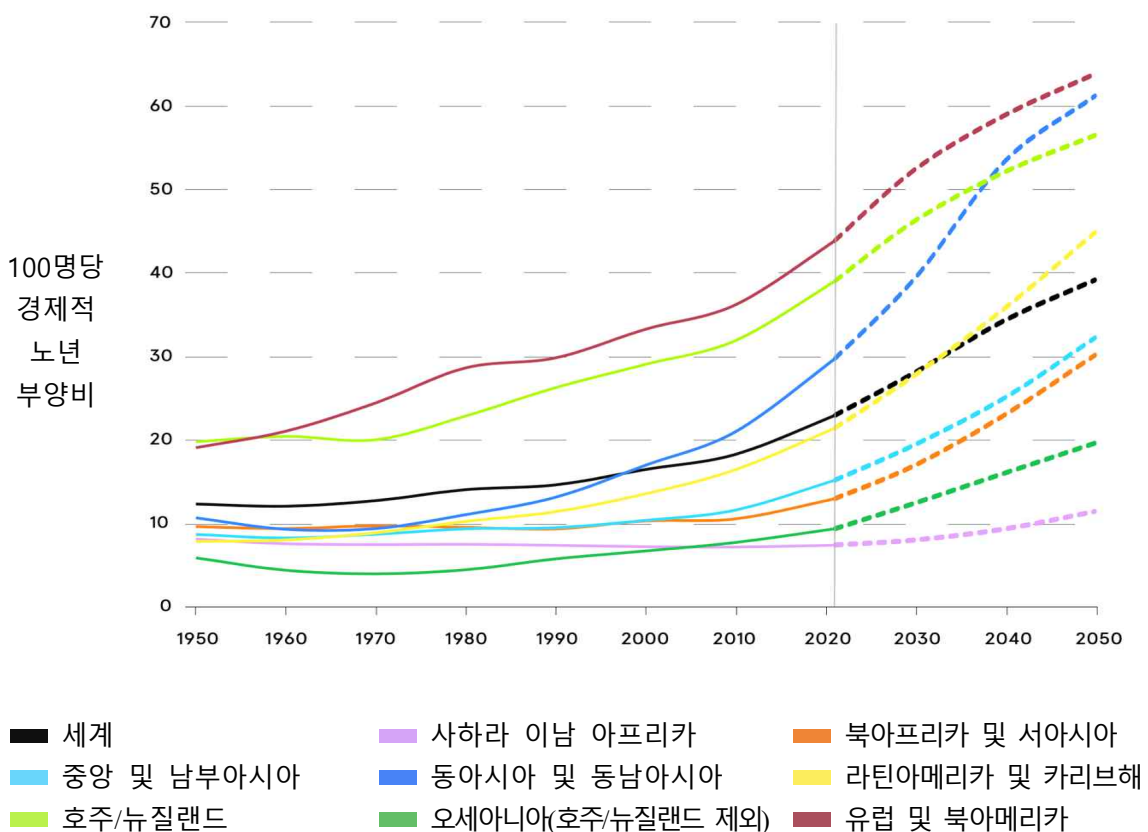
## B. 지속적으로 상향 이동되고 있는 인구연령 분포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는 절대적 숫자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수십 년에 걸쳐 연령 분포의 점진적인 상향 이동을 통해 전개된다.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동안 젊은 연령대의 비율은 감소한다. 이 과정에서 모집단의 중위수와 평균 연령이 모두 상승한다.

2021년에는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었고, 1950년에는 20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었다. 2050년에는 이 연령대가 전 세계적으로 6명 중 1명을 차지할 수 있다(그림 1.2). 향후 30년 동안 노인의 비율이 5개 지역에서는 두 배로 증가하고, 나머지 3개 지역에서는 더 느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높은 출산율로 인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따라서 노인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인구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유럽과 북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추가적인 고령화가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1980년 세계에서 고령화된 10개국 모두가 유럽에 위치했고, 65세 이상의 인구는 약 15%였다(표 1.1). 2021년에는 10개국 모두에서 65세 이상의 비율은 20%를 넘어섰고, 2050년에는 30%로 예상된다. 일본은 2021년에 가장 고령화된 나라였지만, 중국, 홍콩, 중국 특별행정자치구, 그리고 한국이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지역이 지금부터 2050년 사이에 유럽지역에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로 이동할 것이고**, 후자의 지역에서 고령화된 10개국 중 5개국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2> 전 세계 및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1950-2021년 수치, 2022-2050년 예상 수치)



출처: United Nations (2022a).

<표 1.1> 1980년, 2021년, 205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순위	1980		2021		2050	
	국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	국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	국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
1	스웨덴	16.3	일본	29.8	홍콩	40.6
2	독일	15.7	이탈리아	23.7	한국	39.4
3	오스트리아	15.4	핀란드	22.9	일본	37.5
4	영국	14.9	포르투갈	22.6	이탈리아	37.1
5	노르웨이	14.8	그리스	22.5	스페인	36.6
6	벨기에	14.4	불가리아	22.4	대만	35.3
7	덴마크	14.4	푸에르토리코	22.4	그리스	34.8
8	프랑스	14.0	독일	22.2	포르투갈	34.5
9	스위스	13.8	마르티니크	22.1	싱가포르	34.2
10	룩셈부르크	13.6	크로아티아	22.0	쿠웨이트	33.6

출처: United Nations (202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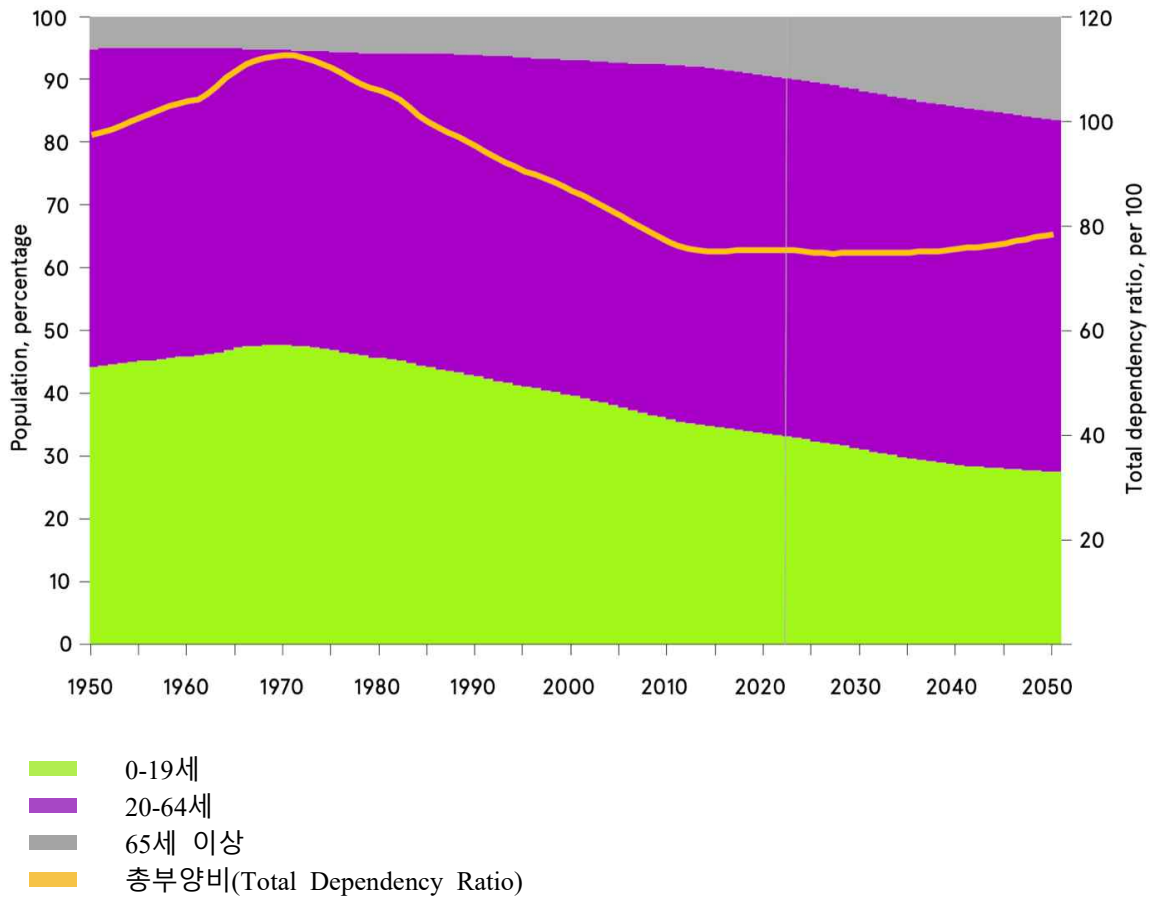
참고: 2021년 중반까지 인구가 90,000명 이상인 지역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과 같은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40년에서 120년이 걸렸다. 14%에서 21%로 더 증가하는데에는 20년에서 50년이 걸렸다. 대조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15년에서 35년이 걸릴 것이며, 14%에서 21%로 증가하는 데에는 10년에서 3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과 2050년 사이에 모든 지역에서 인구의 젊은 층과 노인층의 사이를 구분하는 척도인 중위연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중위연령은 2021년 30세에서 2050년 36세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2021년 30세에서 2050년 40세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동안 유럽과 북미의 중위연령은 40세에서 46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부터 2050년 사이에 16개국의 중위연령이 5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적으로 노인은 젊은 연령층에 비해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인구통계학적 전환기 동안 출산율이 하락함에 따라 연령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생산연령 및 출산연령에서 성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출산율이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인구는 고령화되기 시작하고 결국 노인들의 비율은 증가하기 시작한다. 고령화된 인구가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원천이 되는 젊은 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다.

<그림 1.3> 전 연령대의 세계 인구 분포 및 총부양비 (1950-2021년 수치, 2022-2050년 예상 수치)



출처: United Nations (2022a).

2002년 제2차 세계고령화총회 당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20-64세(54%)였으며, 이는 노동자 10명당 8-9명을 부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그림 1.3). 대부분의 부양 가족은 20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었고, 15%만이 노인이었다. 2021년에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부양가족 중 노인의 비중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어린이와 청소년보다는 적고,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늘었다. 이 비율은 2050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부양비율은 1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된 부분은 8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8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1년과 2050년 사이에 세계 인구의 2%에서 약 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의 변화에 대한 지역별 검토 결과 유럽과 북미는 2013년 정점에 달했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2027년에,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는 2043년에,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는 2058년에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모든 지역은 금세기 말까지 생산연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2021년 세계 인구의 젊은 층이 33%에서 2050년까지 약 28%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젊은 층이 가장 큰 부양가족 비율을 차지할 것이다. 호주와 뉴질랜드, 유럽과 북아메리카, 그리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은 2050년 이전에 노년 부양 가족의 비율이 청년 부양 가족의 비율보다 높아질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는 2060년까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는 2080년까지 노년 부양 가족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오세아니아(호주와 뉴질랜드 제외),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의 인구는 금세기 말까지 젊은 부양 가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C. 보다 정확한 측정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총 부양비 비율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필요한 재정 자원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몇 가지 추가 측정을 통해, 연령에 따른 능력과 의존도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인구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노년부양비는 나이를 기준으로 노인 인구나 생산연령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비교한다. 이것은 모든 노인이 의료를 포함한 경제적 이전의 순 수혜자이며, 이러한 이전은 젊은 연령층의 노동 소득에 의해 자금이 조달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연령대를 순전히 연대순으로 고정된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노인의 건강 상태 및 활동 수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한한다(2장 참조). 출생 후 살아온 연수가 아닌, 사망까지 남은 기대수명에 초점을 맞춘 다른 개념과 지표들은 인구 고령화가 사회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노인들 사이의 경제활동, 건강 및 복지, 비시장 활동 수준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모든 생산 연령층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연구자들은 생산과 소비의 연령 패턴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관점을 제안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의 맥락에서 개발되었다(United Nations, 2013, 2019a; Lee and Mason, 2011; Mason and others, 2017).<sup>5)</sup>

#### 1. 노년 의존도에 대한 연대기적 및 예상노년부양비 측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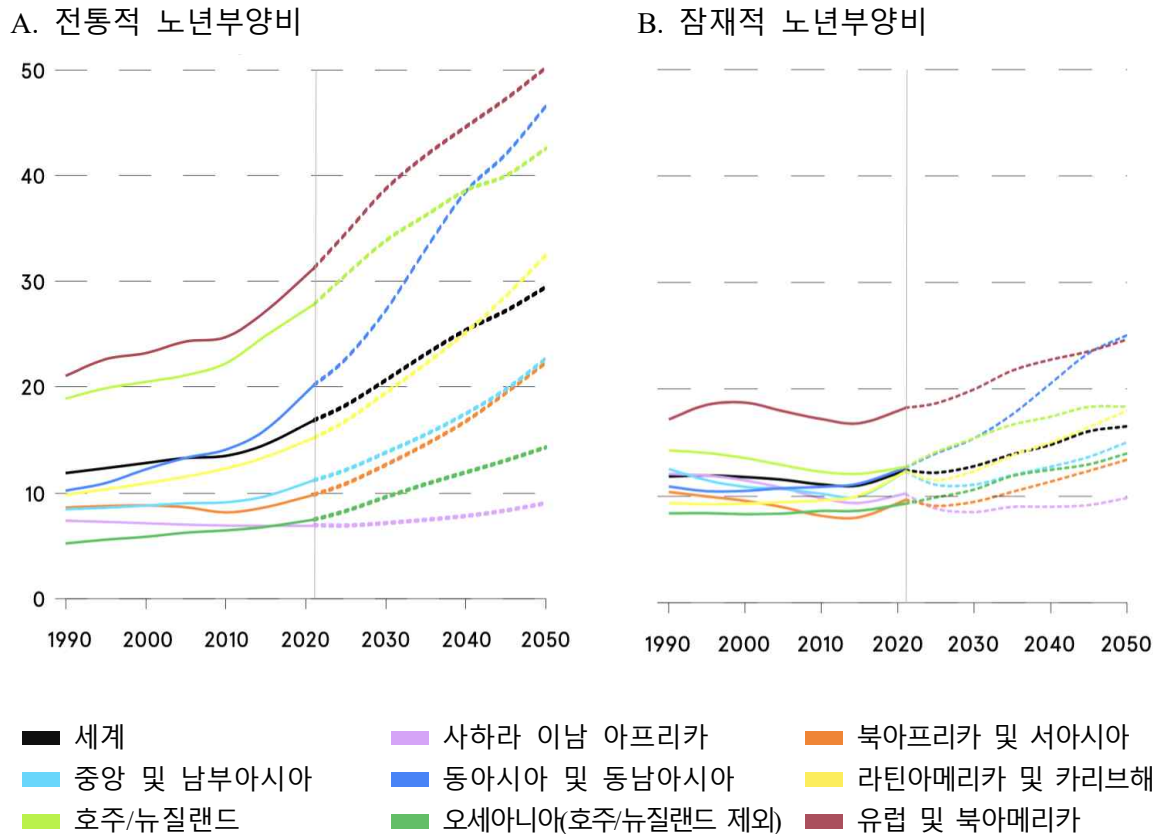
노년부양비는 연령에 따라 기준을 둔 지표로, 65세 이상 인구의 수를 생산연령인구(20-64세)의 수로 나눈 값이다. 이 지표를 사용하면 인구 고령화의 국가적 추세를 조사하고 특정 시점에서 국가 간 비교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65세는 공공연금과 의료를 통한 경제적 이전의 수혜자인 노인을 정의하는 기준이다.

5) 이 장에서 다룬 고령화 측정은 전 세계적 수준 또는 다수의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포괄적인 데이터를 가진 측정에 초점을 맞춘다. 2장은 특정기간 동안 특정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조치를 언급하며, 여기에는 건강 상태 또는 기능적 능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WHO, 2015).

세계 모든 지역에서 노년부양비는 199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21년에는 20-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17명이었다. 2050년에는 이 비율이 100명당 29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1-2050년 사이 모든 지역에서 노년부양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4).

인구 고령화를 평가하는 보완적인 방법은 기존의 초점을 출생 이후 시간(연령)에서 사망에 이르는(임종 나이) 기대여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총계 수준에서 사망까지의 예상 시간은 남은 수명을 포함하는 연령별 사망률에 의해 결정된다. 노년기의 건강, 웰빙 및 사회적 돌봄 수요는 실제 연령보다 기대여명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연령에만 근거한 노화의 사회적 및 경제적 비용에 대한 예측은 편향되기 쉽다(Riffe and others, 2016). 사망률이 감소하고 수명이 늘어나는 기간 동안, 실제 연령에 기반한 건강 및 사회적 관리 비용의 예측은 총 재정 지출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급성 의료 비용은 사람의 연대기적 나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생애 마지막 달에 발생하기 때문이다(Miller, 2001; Riffe and others, 2016; Sanderson and Scherbov, 2010; Stearns and Norton, 2004).

<그림 1.4> 세계의 전통적 및 잠재적 노년부양비(1990-2021년 수치, 2022-2050년 예상 수치)



출처: United Nations (2022a), Sanderson and Scherbov (2005, 2010, 2019).

참고: B에서 볼 수 있듯이 2020-2022년경 예상 비율의 꺾적이 급등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대부분 지역의 기대수명 추세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예상 노년부양비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특정 기간(이 분석의 경우 15년) 동안 살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을 “노인”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비율은 남은 기대여명이 15년에 가장 가까운 나이 이상의 사람의 수를 20년에서 15년 사이의 사람 수로 나누어 계산된다. 이처럼 기대여명이 15년 미만인 사람의 수가 고령화로 인해 타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의 수를 대신한다.

전통적인 기준에 따른 노년부양비와 예상 노년부양비를 비교해보면, 후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호주와 뉴질랜드 제외)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더 낮다. 이 결과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기대수명이 높은 인구의 전통적인 노년부양비가 암시하는 것보다 작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1.4).

## 2. 경제적 관점에서 나이들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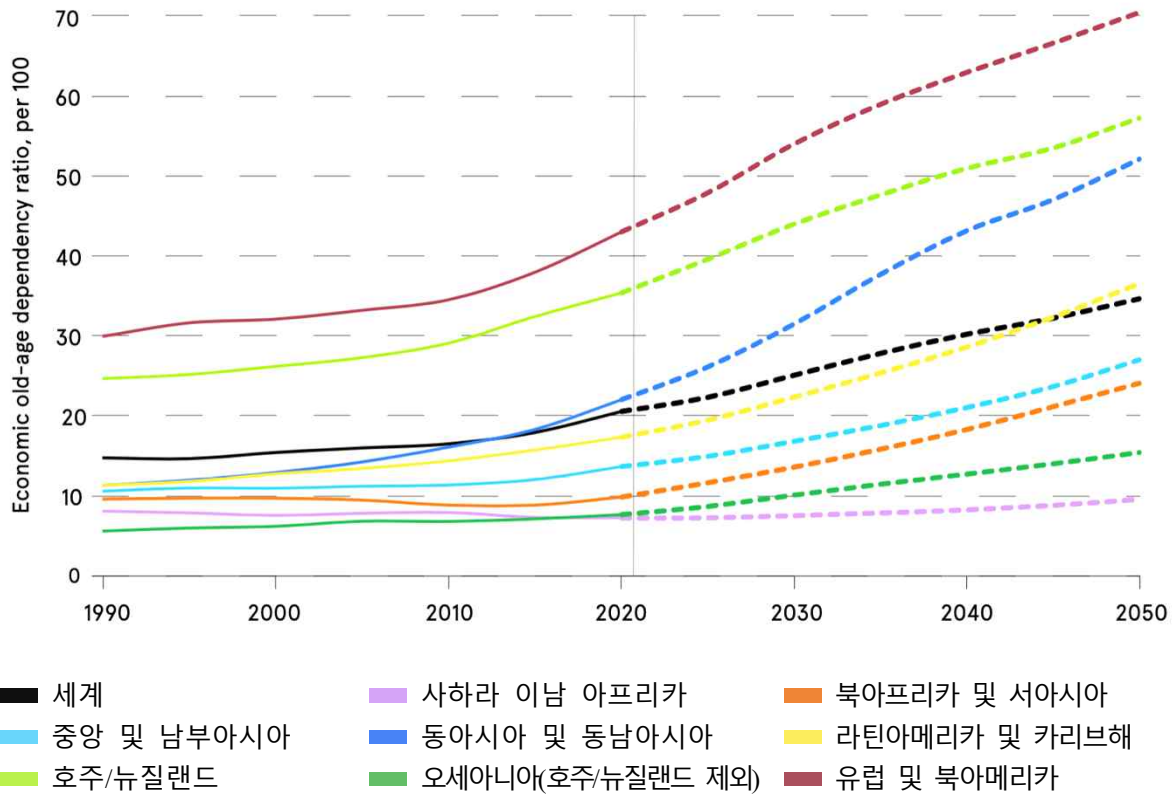
노년부양비는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에 대한 보고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생애 전반에 걸친 소비와 생산수준 및 기타 경제적 행동 요소에 기초한 경제적 유사성을 보인다(United Nations, 2013, 2019a; Lee and Mason, 2011; Mason and others, 2017). 이러한 계정의 분석은 국가 경제에서 소비, 노동 소득 및 기타 경제 집계의 연령 분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이전계정은 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인구 고령화의 영향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면서 경제의 연령 및 세대 차원을 측정하고 분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조치들과는 별개로, 경제적 노년부양비는 노년과 관련된 부양수준(순소비자)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활동의 연령 관련 패턴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 이 비율은 65세 이상의 유효 소비자 수를 모든 연령의 유효 노동자 수로 나눈 것으로 정의된다.<sup>6)</sup> 이러한 측정법의 주요 장점은 노동소득과 소비의 연령별 편차를 명시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년부양비나 예상 노년부양비보다는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의존도를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경제적 노년부양비는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유효 생산자 100명당 65세 이상의 유효 소비자가 21명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2050년까지 이 비율은 100명당 3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5). 경제적 노년부양비는 모든 지역에서 노년부양비보다 약간 높으며, 유럽, 북아메리카, 호주와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소비가 높아 다른 지역에 비해 차이가 크다(United Nations, 2019a).

6) 특정 연령의 유효 노동자 또는 소비자 수는 노동소득 또는 소비 프로파일에 의해 가중된 해당 연령의 인구로 계산된다. 30-49세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한 명의 유효한 노동자와 한 명의 유효한 소비자로 간주된다.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은 30-49세의 평균과 비교하여 노동을 통해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양에 따라 1인 이상 또는 1인 미만의 유효 노동자 또는 소비자로 집계된다(Mason and others, 2017).

<그림 1.5> 세계의 경제적 노년부양비, 1990-2021년 수치 및 2022-2050년 예상 수치



출처: Based on the method outlined in Mason and others (2017).

전 세계적으로 젊은 층과 노년층의 공공 지원에 대한 총 수요를 고려할 때, 부양가족 비율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도는 조금씩 바뀌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은 이미 젊은층에서 노년층으로 의존도가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할 것이다. 인구가 다양한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 비율은 크게 다르다.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절반이 총부양비가 2050년까지 25% 이상 상승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0%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30% 이상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의 초기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안정적이고 경우에 따라 증가하는 인력의 혜택을 누리면서 많은 젊은이와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구 고령화 단계가 더 진행된 지역은 젊은 인구 감소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연령 및 고령 인구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줄이고, 더 나은 건강상태에서 더 오래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년부양비와 같은 인구 고령화의 기존 지표는 종종 경제 의존도의 대리 지표로 사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년부양비의 증가는 공공 서비스, 특히 의료 및 연금에 대한 위험요소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다양한 연령대의 기대수명 증가와 실제 경제 생산 및 소비를 설명하는 다른 척도를 사용하면 보다 세밀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 D.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주요 요인은 늘어난 수명과 핵가족이다.

인구통계학적 전환, 즉 늘어난 수명과 핵가족으로의 점진적인 전환은 유럽과 북미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1800년부터 출산율과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더 많은 인구가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고령화가 진행되었다. 이 전환은 20세기 중반에 세계적인 규모로 시작되었다(Caldwell, 2006; Lee and Reher, 2011).<sup>7)</sup>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단계별로 전개된다(그림 1.6). 인구 증가는 처음에는 가속화되다가 나중에는 둔화되는 반면, 연령 분포는 젊은 층에서 노년층으로 변화한다.<sup>8)</sup>

인구통계학적 변화 과정에서 인구 고령화를 주도하는 세 가지 주요 메커니즘이 있다. 첫째, 출산율이 감소하고 젊은 층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한다(“밑에서부터의 고령화”). 둘째, 인간 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해 노인의 수가 증가한다(“위로부터의 고령화”). 셋째, 노년층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코호트가 이전 세대에 비해 클 때, 이들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인구가 증가한다(“코호트 효과”). 60세 이상의 고령화는 조기 사망률의 감소에서 비롯되지만, 과거 출산율의 변동과 이민자의 유입, 그리고 여러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Bloom, 2019; Sudharsanan and Bloom, 2018).<sup>9)</sup> 이러한 코호트 효과는 과거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출산율과 사망률 수준이 변하지 않더라도 인구의 연령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화 이전의 연령별 및 성별에 따른 인구분포는 피라미드와 유사하며, 젊은 층이 많고 상대적으로 노인은 적다(그림 1.6, 왼쪽 인구 피라미드). 변화 초기에는 인구 고령화와 반대로 인구가 젊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폐렴, 설사, 말라리아를 포함한 감염성 질병의 효과적인 통제와 영양 개선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영유아의 사망률 수준이 가장 먼저 떨어지고, 출산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Caselli, Meslé and Vallin, 2002).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율이 확대되어 피라미드의 저변이 확대된다.

중간 단계에서는 사망률 감소와 동시에 출산율도 떨어지기 시작한다. 인구 피라미드의 기반은 아동 비율의 감소로 인해 좁아지는 반면, 생산연령 및 출산연령 인구의 비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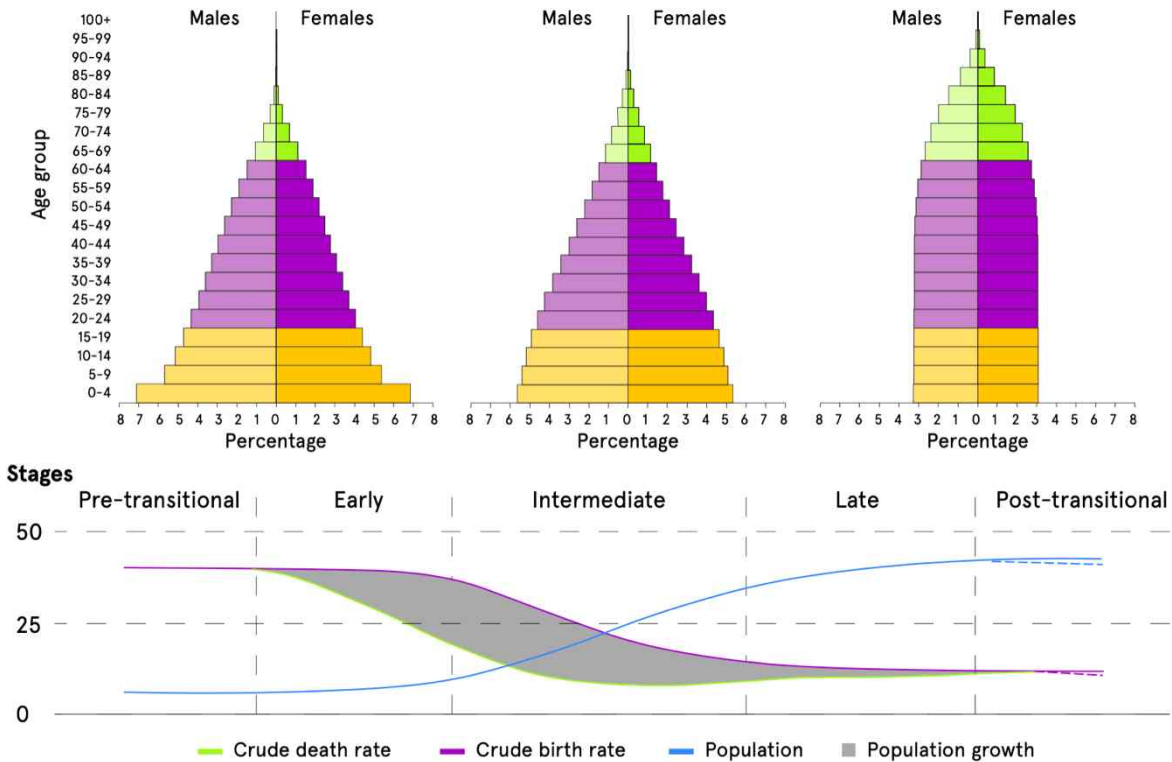
7) 오늘날 어떤 국가나 지역도 과도기 이전 단계에 있지 않다. 전 세계 인구를 구성하는 236개 국가 또는 지역 중 6분의 1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한 지역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3분의 1은 중간 단계, 나머지 절반은 전환기 후반, 또는 전환기 이후 단계에 속한다(United Nations, 2022a).

8)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이러한 정형화된 설명은 인구 추세가 전적으로 출산율과 사망률 수준의 변화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하며, 이주에 대한 척도는 반영하지 못한다. <박스 1.2>는 인구 고령화에서 국제 이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다.

9) 일부 국가에서 194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대규모 코호트와 관련된 연령분포의 변화, 즉 “베이비 붐” 세대는 일시적인 증가로 인한 인구 고령화의 한 예이다(Van Bavel and Reher, 2013). 오늘날의 고령화된 “붐 세대”는 일부 국가에서 노인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확대되어 인구 고령화의 시작을 알린다(그림 1.6, 중간 인구 피라미드). 결국 노인의 비율도 증가하기 시작한다. 전환이 진행되면서 출산율은 변환기를 맞아 수평을 이루거나 감소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다음 세대의 수가 비슷해진다(박스 1.1). 이 단계에서의 인구 피라미드가 종탑이나 로켓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연령대에 따른 인구 규모의 차이가 줄어들 것이다(그림 1.6, 오른쪽 인구 피라미드).

<그림 1.6> 인구통계학적 변화 내 연령별, 성별 인구분포, 조출산율 및 사망률, 총인구



출처: United Nations calculations<sup>[1][2]</sup>

참고: 조출생(또는 사망)율은 연간 출생(또는 사망) 수를 관찰 기간 중간 시점의 인구 규모로 나눈 값이다. 두 비율 모두 연간 1,000명당 출생 또는 사망 수로 표시된다.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이루어지면, 인구 증가가 멈추고 안정적인 규모에 도달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그림 1.6, 전환기 이후 단계). **인구 고령화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불가피한 결과이지만 인구 감소는 그렇지 않다.** 전환기 동안 출산율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나, 이는 출산 부족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인구 감소는 국제적 이주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수십 년 동안 대체 수준 이하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에만 발생한다.(박스 1.2). 오늘날 세계의 약 절반의 국가나 지역에서는 기대수명이 75세 이상이고, 대체 수준 미만의 출산율로 전환했거나 전환 후기 상태에 있다(박스 1.3).

### <박스 1.1> 대체출산율의 의미

대체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으로, 각 세대가 규모 면에서 이전 세대를 정확히 대체하는 자녀 수를 의미한다. 즉, 현재 세대의 부모의 자녀는 다음 세대에 그에 상응하는 수의 잠재적 부모로 성장한다. 자신을 “대체”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한 명의 딸을 낳아야 한다.

여성 한 명당 평균 2명을 출산하는 것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정확하게 대체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첫째는 같은 수의 남아와 여아가 태어나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여성 아이들이 다시 출산할 수 있는 나이까지 생존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체출산율은 출생 시 불균형한 자연 성비(남아가 여아보다 약간 더 많은 경우)와 조기 사망으로 인한 출산 가능한 여성의 감소로 인해 여성 1인당 2명보다 약간 더 높다.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낮은 지역에서의 대체출산율은 여성 1명당 약 2.1명의 출산을 필요로 한다. 사망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출산 가능한 여성의 감소를 고려하여 세대 교체를 위해 약간 더 높은 수준의 출산율이 필요하다(Espenshade, Guzman and Westoff, 2003).

### <박스 1.2> 국제적 이주는 인구 고령화를 늦추거나 가속화시킬 수 있다.

사망률과 출산율의 상호작용을 넘어서, 국제적 이주는 이민자 유입이 많은 국가의 연령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불균형적인 수의 젊은 청년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 과정을 몇 년 지연시킬 수 있다. 이주 국가의 젊은 인구와 노동력을 증가를 가져오기는 하나, 고령화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이민자가 거주 인구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을 경우, 이민자의 자녀들은 젊은 인구 증가에 기여한다.

국제 이민자들은 오늘날 일부 국가에서 생산연령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들은 노년부양비를 낮춤으로써 노동자와 퇴직자 사이의 균형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만약 이민자들이 이주 국가에 남아 나이가 들게 되면, 그들은 결국 고령 집단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는 노인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인구연령분포에 대한 이민의 영향을 점차 희석시킨다. 반면에 이민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 국가의 영주권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젊은 이민자 집단과 함께 돌아간다면, 인구를 다소 젊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준다. 2020년에 국제 이민자가 고소득 국가의 노동 인구 중 거의 19%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 인구의 10명 중 1명 이상이 국제 이주자였다(United Nations, 2020a).

### <박스 1.3> 저출산 우려 국가의 출산 장려를 위한 세금공제 및 출산 장려금 지급

2021년에는 236개 국가 중 124개 국가에서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이하였다. 이 중 47개국은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5명 미만이었다(United Nations, 2022a). 정부 정책과 제도적 환경은

물론 관련 문화, 경제, 그리고 사회정치적 구조와 역사는 출산율을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직업경력과 가정생활의 양립불가능성이다(Wilkins, 2019; Sobotka, Matysiak and Brzozowska, 2019; McDonald, 2006). 다른 요인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교육제도, 성평등, 결혼과 출산 사이의 연관성, 양육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주택시장 및 국제이주 등이 있다(United Nations, 2015a). 지난 30년 동안 인구 고령화와 잠재적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정부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채택했다. 2019년 설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82개 저출산 국가 중 절반의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채택했다(United Nations, 2021b).

광범위한 가족 정책은 부모들이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를 위한 육아휴직 및 유연한 근무시간과 같은 고용 관련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있다. 세액 공제, 자녀 및 가족 수당, 출산 지원비 및 육아 보조금과 같은 금전적 지원, 그리고 보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과 같은 서비스도 있다. 일부 고소득 국가(예: 프랑스, 헝가리, 일본, 한국, 러시아, 싱가포르)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인센티브와 세금 공제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채택했다.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Demeny, 2011; May, 2012).

선진국에서는 가족 중심의 정책이 주로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발전해왔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산모용 자금(maternity capital)” 프로그램과 스웨덴의 “스피드 프리미엄(speed premium)”은 자녀를 낳을 때 현금 혜택을 제공한다. 노르웨이는 양질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에스토니아는 보편적이고 긴 육아휴직을 허용한다(Sobotka, Matysiak and Brzozowska, 2019). 일부 개발도상국은 그들의 복지제도가 포괄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휴가, 가족 또는 아동 수당, 공공보조금 보육을 포함하는 조치를 채택했다. 특히 미국을 제외한 모든 저출산 국가들은 국가유급출산휴가를 제공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버지를 위한 육아휴직을 제공한다(United Nations, 2021a).

최근 저출산율에 대한 우려에 대응한 정책을 검토한 결과,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출산 시기와 간격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obotka, Matysiak and Brzozowska, 2019). 출산 시기에 그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 일과 가정 생활의 충돌을 상쇄하기 위해 성평등을 확립,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 달성, 출산 및 주택 비용 보조, 유연한 근무 방식 허용, 부모 모두에게 육아 휴직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Wilkins, 2019).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개선하고 소득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부양비율과 재정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남성과 여성이 원하는 가족 규모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특히 여성의 노년기에 재정적 독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직장생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2장.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향해

### 주요 논점

- 인간의 기대수명 증가가 장기적인 추세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더 오래 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은 국가마다, 그리고 국가 내에서도 상당히 다를 수 있다.
- 기대수명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더 나은 건강을 반영한다. 건강하게, 적어도 심각한 장애 없이 오래 사는 노인이 증가했다.
- 남성은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수명이 짧다. 그러나 나이든 여성은 더 많은 질병과 장애를 경험한다. 심혈관 질환과 암이 사망 원인의 주요 요인임을 고려할 때, 다양한 개인 행동양식과 환경 위험에 대한 노출은 성별을 포함한 질병률과 사망률의 집단 변화에 기여한다.
- 인종이나 민족성으로 인한 소득, 교육 및 생활 방식의 불평등은 개인의 건강과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망 위험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경제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은 서비스의 불평등한 이용과 기대수명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 노년기에 도달하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삶의 초기에 경험한 조건들이 노년기의 건강과 웰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나이듦”의 개념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능적 능력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인구 고령화 사회는 다양한 기능적 능력을 가진 노인의 수가 증가하는데 적응해야 한다.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의 본질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도 달려 있다. 지원적인 환경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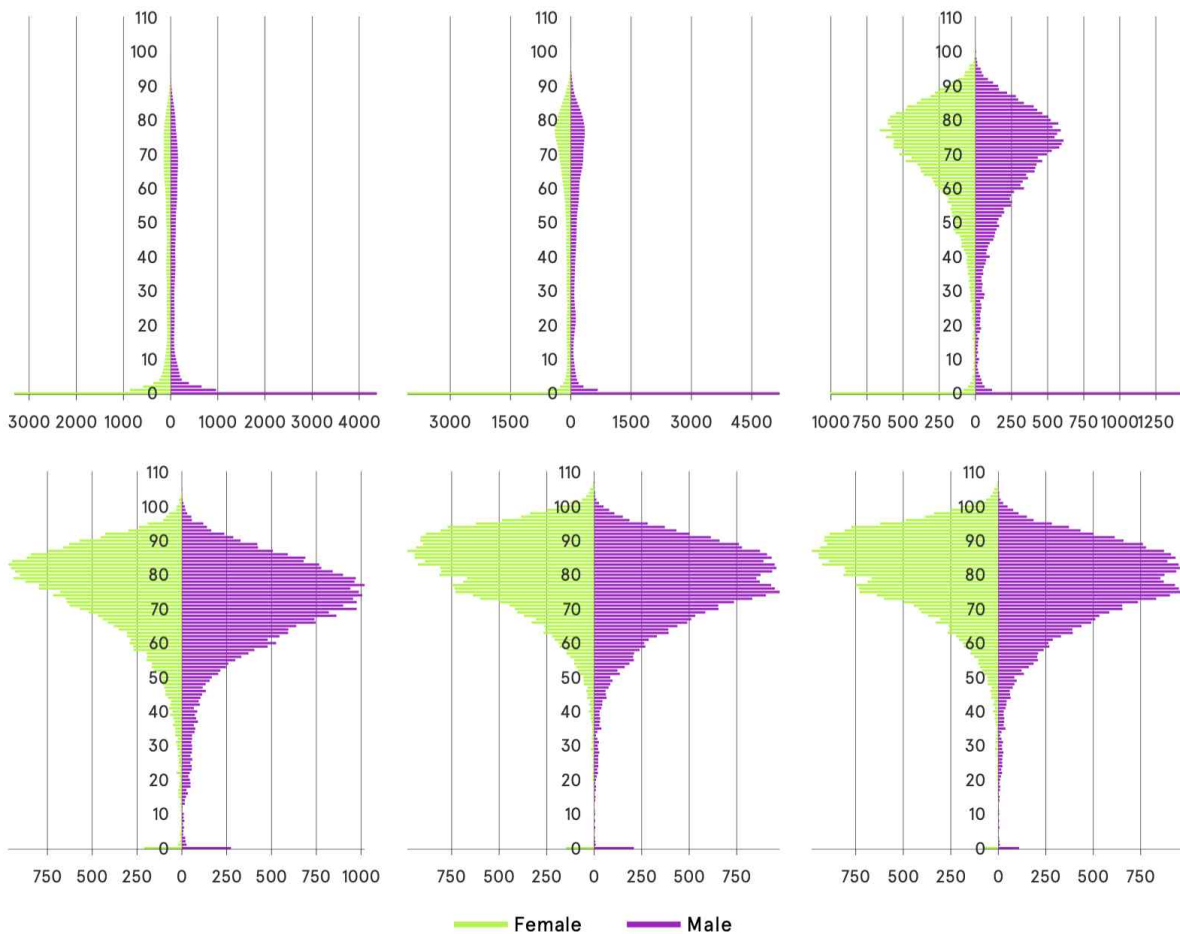
모든 사람들은 더 오래 살기를 열망한다. 사람들은 여생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질병과 장애로 보내게 될지 궁금해 한다. 개인의 경우,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악화되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 집단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는 노동시장, 사회보장 및 의료시스템 및 기타 제도를 조정하여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유엔은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더 넓은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이러한 관점을 실행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 회원국은 2021-2030년을 유엔 ‘건강한 나이들 10년(the United Nations Decade of Healthy Ageing)’으로 선언했다. 이 계획은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 행동 계획(the 2002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과 2016-2020년 WHO 고령화 및 건강에 대한 글로벌 전략 및 실행계획과 같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다.

### A. 수명 연장은 인류의 성공적 역사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인구통계학적 전환으로 인해 높은 사망률에서 낮은 사망률로 전환되었다. 국가마다 변화의 시기와 속도에 차이는 있지만, 평균수명 또는 출생 시 기대수명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사망률 감소는 젊은 연령층에서 노년층으로의 사망분포변화를 수반한다.

<그림 2.1> 1835-2020년 덴마크의 성별 및 연령별 사망자 수



출처: Robine (2021), based on data from the Human Mortality Database. 참조 [www.mortality.org/](http://www.mortality.org/)

<그림 2.1>은 1835년부터 현재까지 덴마크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패턴이다. 19세기에는 사망자의 대부분이 어린이와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발생했으며, 이차적으로는 대략 60-80세 범위의 사람들 사이에 집중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유아 사망률은 예방적 건강 조치, 감염성 질병의 치료 개선, 모자 건강관리의 개선으로 인해 감소했다.

덴마크의 사망률은 20세기 초부터 성인 연령층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변화는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때 30세 미만의 사망은 거의 없었고 특히 80대, 90대, 100대 노인들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 전 세계 모든 지역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짧은 기간 내에 사망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사망률의 “압축”이라 표현한다(Wilmoth and Horiuchi, 1999; Kannisto, 2000; Robine, 2021). 이 용어는 최빈사망연령(modal age)을 기준으로 사망 집단을 설명한다. 최빈사망연령이 높을수록 사망 시(또는 사망 지연) 연령이 높아지고 평균수명이 증가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최근 외부 사망원인의 증가로 인해 이러한 “압축” 현상이 멈추었고, 기대수명의 증가가 둔화되었다.<sup>10)</sup> 그리고 유럽 및 북아메리카의 여러 국가에서 사망 연령의 가변성이 증가했다(Beltrán-Sánchez, Finch 및 Crimmins, 2015).

20세기 초에 더 발전된 지역의 기대수명 증가는 영유아의 사망률 감소에서 비롯되었다(Thatcher and others, 2010). 보다 최근에는 고령자의 사망률 감소가 이미 사망률이 낮은 국가에서 기대수명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부터 저사망률 국가에서 평균 기대수명 증가의 2/3 이상이 60세 이상 노인의 수명 연장에서 비롯되었다. 사망률이 높은 국가에서, 최근의 기대수명 증가는 대부분 젊은 나이의 사망률 감소에 기인한다.<sup>11)</sup>

### **세계적으로 2021년에 태어난 아기는 1950년에 태어난 아기보다 평균 25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대한 논의는 <박스 2.1> 참조).<sup>12)</sup>**

모든 지역에서 기대수명이 증가했지만, 가장 큰 증가를 보인 곳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생존율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거의 34년 가까이 늘어났다. 1950년에는 43세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이 지역 사람들의 수명이 76.5세로 늘어났다. 아태지역과 유럽의 고소득 국가와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기대수명이 가장 높다. 중소득 국가들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여러 국가들이 기대수명을 80년 이상 달성하면서 선례를 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저소득 국가는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대수명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22a).

10) 외부 사망원인으로는 고의 및 의도치 않은 부상, 중독(약물 과다복용 포함), 의료 또는 외과치료로 인한 합병증 등이 있다(WHO, 2022b).

11) 고사망률 국가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출생 시 기대수명이 60세 미만인 국가를 의미한다. 저사망률 국가는 같은 기간 출생 시 기대수명이 75세 이상이다.

12) 이 값들은 “기간” 기대수명을 반영하는데, 이는 현재 사망률이 평생 동안 지속될 경우 신생아가 살 수 있는 평균연령을 보여준다. 그 추정치는 실제수명을 예측하지 않는다.



**<박스 2.1>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기대수명의 증가를 억제했다.**

전 세계 출생 시 기대수명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2019년 72.8세에서 2021년 약 71세로 대부분 감소했다. 일부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더 큰 감소를 보였다. 중앙 및 남부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평균수명이 거의 3년 감소했다. 코로나-19는 젊은 사람들보다 노인들 사이에서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고령자는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고 치사율도 더 높다.<sup>13)</sup>

환경 및 사회적 요인은 국가별로 코로나-19의 노인 사망률에 대한 차이를 설명한다. 이러한 요인에는 동반 질환의 만연, 지지적인 고령화 사회보호 시스템의 존재, 위험이 증가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의 능력 등이 포함된다.

노인들이 집단 거주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전염성을 높여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Comas-Herrera and others, 2020).

팬데믹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 이용 가능한 추정치에 따르면, 65세의 전 세계 기대수명은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1.2년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 출생의 71% 이상의 기대수명 감소를 나타낸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65세 노인의 평균수명이 감소했다. 이는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2.3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 1.5년으로 가장 두드러졌다(United Nations, 2022a, 2022b).

13) 치명률은 특정 기간 동안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사람 중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 B.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여성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산다.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산다는 데이터는 과거와 현재 가용 데이터를 통해 나타난다(표 2.1)(United Nations, 2020b).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인구의 성별 격차는 2-3년을 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Beltran-Sanchez, Finch and Crimmins, 2015). 그러나 최근에는 특히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그 차이가 더 벌어졌다. 19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4년 더 살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에는 남녀 모두 1950년의 남녀보다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되지만, 둘 사이의 차이는 5년 이상으로 증가했다. 출생 시의 세계 기대수명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더 증가하여 2050년까지 여성은 80세, 남성은 75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수명의 성별 격차의 변동은 질병 패턴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세기 말부터 21세기 초까지 만성 및 퇴행성 질환에 의한 사망자의 비율이 증가했다. 수십 년 동안 심혈관 질환은 대부분 저사망률 국가에서 주요 사망 원인이었다. 일부 사망 원인에 대한 성별 차이는 미미하지만(예: 대부분 전염병 및 암), 심혈관 질환과 관련하여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이환율과 사망률의 지속적인 감소는 적어도 저사망률 국가의 경우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의 점진적인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Crimmins and other, 2019).

<표 2.1> 1950년, 2021년 및 2050년 성별, 세계, 지역 및 소득 그룹별 출생 시 기대 수명

지역	1950		2021		2050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세계	48.4	44.6	73.8	68.4	79.8	74.8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8.7	36.2	61.6	57.8	69.1	64.3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43.4	39.8	74.8	69.7	80.8	76.0
중앙 및 남아시아	40.2	41.5	69.6	65.9	79.4	74.9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45.6	40.3	79.6	73.6	84.1	79.4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50.8	46.5	75.8	68.8	83.1	78.1
호주/뉴질랜드	71.6	66.7	85.6	82.7	88.6	85.4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 제외)	43.9	40.3	70.1	64.6	74.9	68.4
유럽 및 북아메리카	66.6	61.2	80.4	73.9	86.1	81.6
<b>세계은행에 따른 소득 그룹</b>						
고소득 국가	65.0	58.2	83.1	77.5	87.6	83.4
중소득 국가	44.9	42.2	72.7	67.6	79.6	74.8
저소득 국가	35.1	28.6	65.0	60.0	71.6	66.0

출처: United Nations (2022a).

여아와 여성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에 비해 낮은 사망률을 보이고, 특히 노년기에서 여성의 생존 이점이 두드러진다. 나이든 여성은 식이요법, 직업적 위험, 환경 노출, 건강관리, 그리고 담배 및 알코올 사용과 같은 생활 방식의 위험 요소에 대한 누적 노출이 남성보다 낮다. 특히 남성들은 65세 이후에 암, 심혈관 질환, 그리고 생활 습관과 관련된 다른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다. 반면 여성들은 관절염, 골다공증, 우울증과 같은 만성 질환의 비율이 더 높으며, 이는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감소시킬 수 있지만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Carmel, 2019; OECD, 2021a; United Nations, 2020c).

남성과 여성이 다소 다른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별이 더 나은 건강을 누리고 있다고 특징지을 수 없다. 이러한 차이는 역사적 시간, 지리적 위치 및 개별적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Crimmins and others, 2019).

### C. 건강한 나이들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들

사망 위험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의 건강 상태도 상당히 다양하다. 질병과 장애에 대한 서로 다른 경험은 유전학, 병력, 환경 노출, 개인 습관,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무작위 변이 등 개인 간 다양성을 반영한다.

삶의 “양”과 “질” 사이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WHO는 건강한 나이들을 “노년기에 웰빙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WHO, 2020a, p. 8). 기능적 능력은 “사람들이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배우고, 성장하고, 결정을 내리고, 이동하고, 관계를 구축 및 유지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ibid., p. 11). 사람의 본질적인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나 부상의 존재와 심각성(유병률), 나이와 관련된 생리적 변화(생물학적 노화 또는 노화)와 같은 몇 가지 요인이 기능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사람들이 사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은 건강한 나이들을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sup>14)</sup>

건강한 나이들은 노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중점을 두지만 이 용어는 인생 전체에 걸친 과정을 의미한다. **수명 연장과 노년기에 더 나은 웰빙에 도움이 되는 변화는 생애 초기에 발생할 수 있다.** 어린 시절의 더 나은 영양, 평생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 향상, 위험한 작업 조건에 대한 노출 감소, 흡연, 다이어트 또는 신체 활동 측면에서 건강을 추구하는 행동 변화는 모두 더 건강한 노후 생활에 기여할 수 있다(Crimmins and others, 2019). 특정 유병률과 사망률의 위험은 같은 나이라도 개인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인생 과정 전반에 걸친 이러한 역동적인 과정은 노인들 사이에서 내재적 능력과 기능적 능력의 패턴과 궤적에 큰 이질성을 생성한다(WHO, 2015, 2020).

14) 환경에는 가정, 공동체 및 더 넓은 사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구축된 환경, 사람들과의 관계, 태도와 가치, 건강과 사회정책,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들이 구현하는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WHO, 2020b, p. 10).

많은 지표를 통해 장애 없는 기대수명, 건강수명, 만성 질환 없는 기대수명, 인지장애 없는 기대수명을 포함하여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평균 연수를 평가할 수 있다.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와 건강이 좋거나 나쁠 경우의 예상 수명 추정치는 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D. 오래 산다고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니다(특히 여성의 경우).**

건강수명은 기대수명과 비슷하지만 삶의 양에 질적 차원을 더한 것이다. 건강수명은 질병이나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살 것으로 예상되는 남은 기간에 대한 척도를 제공한다. 건강한 기대수명의 구체적인 척도는 장애가 없는 기대수명이다. 장애가 없는 기대수명이 총 기대수명에 비례하여 증가하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최근 아시아, 서유럽, 북미의 선별된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 최근 수십 년간 증가한 기대수명은 전체 기대수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장애 없는 수명이 비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모든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장애가 없는 기대수명과 장애가 있는 기대수명이 거의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기능적 건강이 양호한 상태에서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장애를 안고 사는 연령의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Robine, 2021,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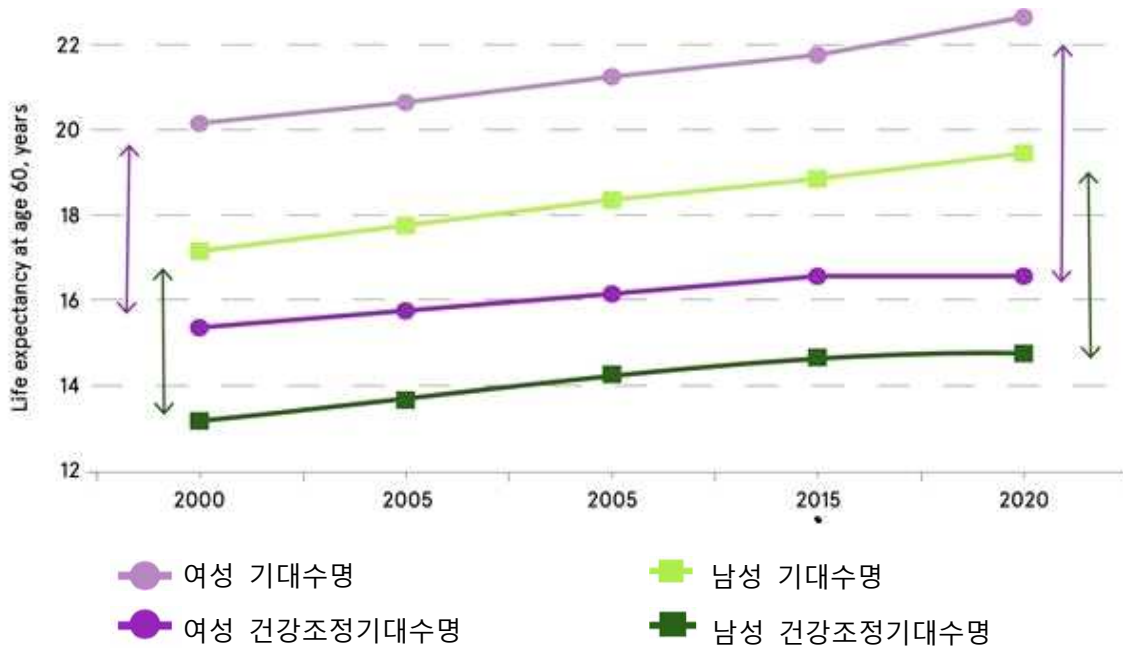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남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건강수명의 수준과 추세에 대한 증거는 그리 많지 않다. 인도에서 노인(60세 이상)은 1995년에서 2004년 사이에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모두 증가했다(Sreerupa and others, 2018). 도시지역 노인 여성 장애의 상대적 확대(증가된 비율)에 비해 농촌 지역의 노인 남성의 경우 장애의 상대적 압축(운동성 저하에 따른 기대수명의 감소된 비율)이 발생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50세 이상에서 자체 평가한 건강수명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대수명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Chirinda and others, 2018).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60세의 장애 없는 기대수명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급격히 감소한 반면 기대수명은 계속 증가했다(Campolina and others, 2014). 칠레에서 60세에 인지 장애가 없는 기대수명(연도 및 총 기대수명의 비율)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했다(Moreno and others, 2019).

인구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는 1990년대 초부터 WHO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강보정기대수명 측정(measures of health-adjusted life expectancy)을 통해 알 수 있다. 건강보정기대수명은 사람이 건강하게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어떤 형태의 질병, 부상 또는 장애를 안고 살았던 기간의 일부를 더한 것이다(WHO, 2020c). 최신 추정치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9년 사이에 전 세계 기대수명은 67세에서 74세로 7년 증가했다.<sup>15)</sup> 건강한 기대수명도 58세에서 64세로 6년 증가했다.

---

15) WHO의 추정치와 2022년 세계 인구 전망 개정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림 2.2> 2000-2019년 일부 국가의 60세 이상의 성별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출처: WHO (2020c).

참고: 데이터가 존재하는 183개국에 대한 수치

WHO와 2022년 개정된 "세계 인구 전망"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림 2.2>는 2000년과 2019년 사이에 60세의 기대수명과 건강고려기대수명을 보여준다. 이 둘의 차이는 주어진 질병 부담 또는 장애를 안고 살았던 연수를 나타낸다. 평균적으로 60세의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건강고려기대수명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2000년에 남성의 격차는 4.1세였고 여성의 경우 5.3세였다. 2019년에는 남성의 경우 4.7년, 여성의 경우 6.0년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세계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율은 출생 시와 60세에 약간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은 국가 내 및 국가 간의 상당한 변동을 반영하기 힘들다(WHO, 2020b).

장애에 관한 기초조사는 종종 나이든 여성이 나이든 남성보다 그들이 장애인임을 식별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맥락에서 장애란 도움 없이 방을 가로질러 걷는 것, 스스로 음식을 먹는 것, 화장실 시설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일상 생활의 특정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 격차는 여성이 건강 문제를 드러내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연구원들은 직접적인 신체 측정을 통해 나이든 여성들 사이에서 더 높은 장애의 유병률을 확인했다. 전반적으로 여러 증거들은 여성이 눈에 띄는 불이익을 받는 가운데 노년기 장애의 성 격차가 현실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한다(Crimmins and other, 2019).



## E. 건강과 기대수명의 차이는 여러 불평등 요인과 얽혀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기대수명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사망 위험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다. 사회경제적 상위 집단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하위 사회경제적 집단의 기대수명 감소로 인한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다.

비용 및 기타 장벽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사용, 의료분야의 기술혁신 채택 및 예방적 건강행동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질병을 피하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나은 초기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더 넓은 사회, 경제, 환경 및 문화적 조건은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질병과 관련된 일부 위험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역학은 사회 계층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건강과 기대수명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많은 선진국에서 기대수명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가장 부유한 사람과 가장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덴마크에서는 저소득층의 기대수명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감소한 반면 가장 부유한 그룹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King and others, 2019; Dahl and others, 2021). 그러나 소득 수준과 관련된 기대수명의 불평등은 남녀 간에 동일하지 않다. 스웨덴에서는 2005년과 2016년 사이에 소득 상위 4분위와 하위 4분위 남성의 65세 기대수명 격차가 3.4년에서 4.5년으로 늘어났다. 여성의 경우 격차는 2.3년에서 3.4년으로 커졌다(Fors, Wastesson and Morin, 2021).

### 최근 일부 선진국의 기대수명 불평등 증가는 빈부격차 확대와 맞물려 있다.

교육 수준을 사회경제적 지위의 척도로 사용하는 유럽 15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낮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지속적으로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Mackenbach and others, 2019). 결과는 국가마다 달랐는데,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스페인의 남성과 가장 낮은 남성 사이에 2.1년 차이가 났고, 리투아니아의 이 두 그룹 사이에는 8년 이상 차이가 났다. 그 격차는 여성들에게 더 작았지만 여전히 지속적이었다. 스페인 여성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기대수명이 0.6년 차이가 나는 반면 리투아니아 여성은 4년 이상 차이가 났다.

기대수명의 심각한 인종적 불평등이 미국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교육과 소득의 인종적 차이에 기인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격차가 좁혀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80년부터 2018년 사이에 대학 교육을 받은 성인은 학위가 없는 성인보다 25세에서 75세 사이의 평균 연령에서 3년 더 살았다(Case and Deaton, 2021). 이러한 교육 격차는 대학 교육을 받은 흑인과 백인 모두에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기대수명의 인종적 차이는 70%로 감소했고, 평균수명의 교육 격차는 백인과 흑인 모두에서 두 배가 되었다.

위험 요인은 소득과 교육에 의한 기대수명의 불평등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 행동 위험(흡연, 알코올 소비, 과체중, 신체적 비활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로이다(AI Snih and others, 2007; Tian and others, 2011). 예를 들어 흡연 유병률과 비만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미국인들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훨씬 더 빠르게 감소했다(Bor, Cohen and Galea, 2017).

사회경제적 지위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불평등한 영향과 사망률의 차이를 가져온 주요 요인이다(박스 2.1). 낮은 지위의 그룹은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이 더 제한적인 경우에도 집에서 일할 가능성이 적었고, 그로 인해 감염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Mena and other, 2021). 또한 코로나-19 사망률 및 유병률(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장질환, 비만 등)을 증가시킨 위험 요인 또는 동반 질환은 사회경제적 하위 계층에서 더 높다.

미국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65세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에 대한 병원 결과에 따르면 인종 및 인종적 차이에 따라 사망률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Song and others, 2021).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의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지역의 사람들보다 코로나-19 발병률과 사망자 비율이 더 높았다(Hawkins, Charles 및 Mehaffey, 2020).

## **F. 조기 사망은 감소했지만 아직 미래는 불확실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최근 건강과 웰빙에 대한 발전을 방해했다. 세계적으로 2021년 출생 시 기대수명은 2019년과 비교해 1.7년 감소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8년 후 2030 지속가능 발전의제와 ‘건강한 나이들 10년’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에 기대수명은 전 세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sup>16)</sup> 이 시점에서 평균수명은 더 발전된 지역에서는 82세, 덜 발전된 지역에서는 73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까지 65세의 기대수명은 점점 증가하여 더 발전하고 덜 발달한 지역에서 각각 21세와 17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10%에서 12%로 증가할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기 사망하는 것은 감소하고 있으며, 더 나이가 들어 사망한다. 높은 수준과 중간 수준의 사망률을 가진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지만, 이러한 국가는 선진국과 유사한 사망률 감소 경로를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신생아의 건강 상태, 하부 호흡기 감염 및 순환계 질환을 포함한 전염병 및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Gouda and others, 2019). 이러한 상황과 코로나-19 팬데믹이 유병률과 사망률의 추세와 패턴에 미치는 전 세계적 영향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추세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불확실하다.

16) 2021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사망률, 특히 노인 사망률에 영향을 미쳤다. 예측 기간 동안 2020년과 2021년 사망률과 2022년 초 성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범위에 따라 모든 국가가 2022년에서 2025년 사이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의 출생 시 기대수명 추세를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회복은 여러 지역에서 단기 및 중기에 걸친 대유행의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의 맥락에서 합리적인 가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United Nations, 2022b, 2022c).

모든 지역에서 기대수명이 크게 증가했지만, 국가 간 및 국가 내에서 현저한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소득, 교육, 인종 및 기타 요인과 생활 방식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이 요인들은 부분적으로 삶의 과정 전반에 걸쳐 개인의 건강상태와 사망 위험을 결정한다. 기대수명의 격차는 경제적 수준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수명이 늘어나는 장기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노년기의 장수와 건강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국가에 따라 다양하다. 비록 건강한 삶 혹은 심각한 장애 없이 사는 삶은 늘어나고 있지만, 오래 산다는 것이 꼭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결과는 모집단의 건강 프로파일, 기간 및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척도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한 나이들 10년’ 계획의 핵심 목표는 증가하는 노인 인구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질병 예방, 평생 동안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지원 환경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3장. 인구 고령화가 경제와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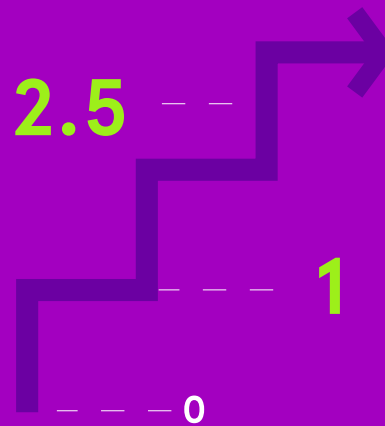
#### 주요 논점

- 인구연령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속도로 전개된다.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가 인구통계학적 전환기 어디에 있는지, 교육과 인적 자본 형성을 포함한 경제 구조와 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 젊은이와 노인은 평균적으로 공식적인 노동을 통해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한다. 가정, 시장, 정부는 한 연령층에서 다른 연령층으로 경제적 자원을 재배치하여 생애 전반에 걸쳐 원활한 소비를 촉진한다. 인구 고령화는 재분배를 위한 채널의 지속적인 적응을 요구한다.
- 고령화 사회는 증가하는 건강 관리, 장기돌봄, 퇴직 및 기타 노후 지원 등 증가하는 비용으로 인해 재정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생산연령 납세자 감소로 인한 정부 수입 감소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고령화를 경제 발전의 필수 요소로 만들고 노인이 더 넓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들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성별 격차와 무급노동에서 여성의 압도적 비율을 반영한다. 이러한 패턴은 여성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더 낮은 연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제도는 성별 격차를 줄이고 노년기 여성의 소득보장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변화할 필요가 있다.
- 모든 사회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효과적이고 공평한 사회 및 경제 정책을 통해 일과 가정 관계에서 상충되는 이슈에 대해 조정 및 지원해야 한다.

# FACTS FROM CHAPTER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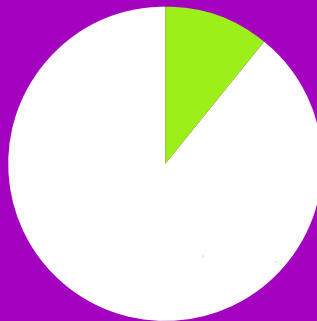
THE SHIFT IN THE  
AGE STRUCTURE OF A  
POPULATION CAN RESULT  
IN DEMOGRAPHIC  
DIVIDENDS THAT CAN  
CONTRIBUTE BETWEEN

**1 AND 2.5**  
PER CENT  
OF ANNUAL GROWTH  
IN GDP PER CAPITA



**2015**

the life cycle deficit, or  
unmet resource needs of all  
older persons worldwide



was estimated at  
**11.5**  
PER CENT  
of the total labour  
income

인구 고령화는 국가가 인구통계학적 전환기의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기회이기도 하다.

많은 국가들이 높은 출생율과 낮은 사망률 수준으로 변화함에 따라, 세계 인구는 연령 분포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와 지역에 걸쳐 서로 다른 시간과 속도로 전개되고 있고, 중간 단계와 상위 단계에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젊은 층(0-19세)과 노인층(65세 이상)은 평균적으로 노동을 통해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소비한다.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생산연령층(20-64세)은 자신의 노동력을 통해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가 적다. 가족, 시장, 정부는 한 연령층에서 다른 연령층으로 경제적 자원의 재할당을 통해 평생 동안 이러한 소득과 소비 패턴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노인의 경우, 세대 간 재할당은 저축 또는 기타 금융 자본과 재산 또는 물리적 자본을 포함한 개인의 부의 축적에서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재할당은 가족 구성원 사이와 같은 사적 이전과 정부 프로그램을 통한 공적 이전에서 발생한다.

세대 간 이전을 위한 공공 시스템은 지배적인 사회 계약에 기초한다. 아동, 청년, 노인은 생산연령인구로부터 교육, 의료, 연금 등의 지원을 받는다. 어렸을 때는 사회의 어른들로부터 이러한 지원을 받고, 나이가 들면 젊은 세대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노인들은 생산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육아, 자원봉사, 시간제 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일을 통해 경제와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내에서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자본 이전을 할 수도 있다.

2015년 119개국의 표본을 기반으로 세계 모든 노인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적자 또는 충족되지 않은 자원을 조사했는데, 연령에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총 노동 소득의 11.5%로 추정되었다(Mason and Lee, 2018). 이 적자폭은 저소득 국가보다 고소득 국가에서 더 크며, 이는 공공 또는 민간 이전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국가들은 적자 재정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은 공공 이전, 자산 기반 재할당(순자산 소득 또는 저축 지출) 및 개인 또는 가족 이전의 조합에 의존한다. 이러한 조합과 전체 가용 자원은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과 잠재적인 정책 대응을 결정한다. 많은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 노인들은 자산 기반 재할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공공 이전에 대한 의존도는 낮다. 많은 나라에서 가족 이전은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노인에게 전가되는 순 개인/가족 이전은 크지 않다.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자녀와 손주에게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녀와 손주에게 전가한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노인 증가 비율이 경제의 생산 능력을 제약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강 관리, 장기돌봄 및 연금 지출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IMF, 2019). 이는 공공 재정에 대한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효과적이고 공정한 전략을 통한 완화가 필요하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경제 및 사회적 보호 구조, 공공 재정, 공적 및 사적 연금 제도의 개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령화가 경제 및 공공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많은 부분이 정책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가 인구 고령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게 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연대기적 고령화 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노인의 경제, 사회보장 및 건강 요구의 규모를 나타내는 요약 통계로서 재정 및 사회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노인들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실제 연령은

나이들의 중요한 척도이지만, 경제적 생산성, 건강, 기능적 능력 및 생물학적 연령의 측면에서 다양한 연령대를 비교하고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속성은 사회경제적 및 건강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보다 직접적으로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노인의 노동력 참여에 대한 현재의 측정 방식은 노인들이 비공식 경제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노인의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측정 방법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이 장에서는 국가가 고령화에 경제적 도전과 기회를 탐색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전체 생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동 인구의 규모와 구성, 노동 참여율과 같은 주요 노동시장 변수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이 장에서는 나이들의 기회를 활용하고 보다 광범위하게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검토한다.

## **A. 우리는 나이들 이슈에 직면해 있고 도전을 받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여러 경제적 영향은 인구통계학적 전환의 다양한 단계에 맞춘 적절한 정책 대응을 통해 신중한 탐색이 필요하다. 고려해야 할 차원에는 인구통계학적 배당, 경제의 생산능력, 소비 패턴, 소비 자금 조달 및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달성이 포함된다.

### **1. 두 가지 인구배당효과를 통해 더 큰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

인구연령구조의 변화는 두 가지 인구배당효과를 이끌어내며, 이는 연간 1인당 GDP의 1-2.5%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Mason and others, 2017). 첫 번째 인구배당은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감소하여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증가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더 적은 부양 가족과 더 많은 노동자가 있으면 경제 및 사회 발전 가속화를 위한 소비 또는 투자를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첫 번째 배당 기간 동안 경제에서 유효 생산자 대 유효 소비자의 비율이 상승한다. 이 기간은 상당히 길 수 있으며 종종 50년 이상 지속된다(그림 3.1). 그러나 낮은 출산율은 수명 연장이 고령 인구의 증가를 가속화하더라도 결국에는 노동력 성장을 감소시킨다. 결과적으로 1인당 소득의 증가는 둔화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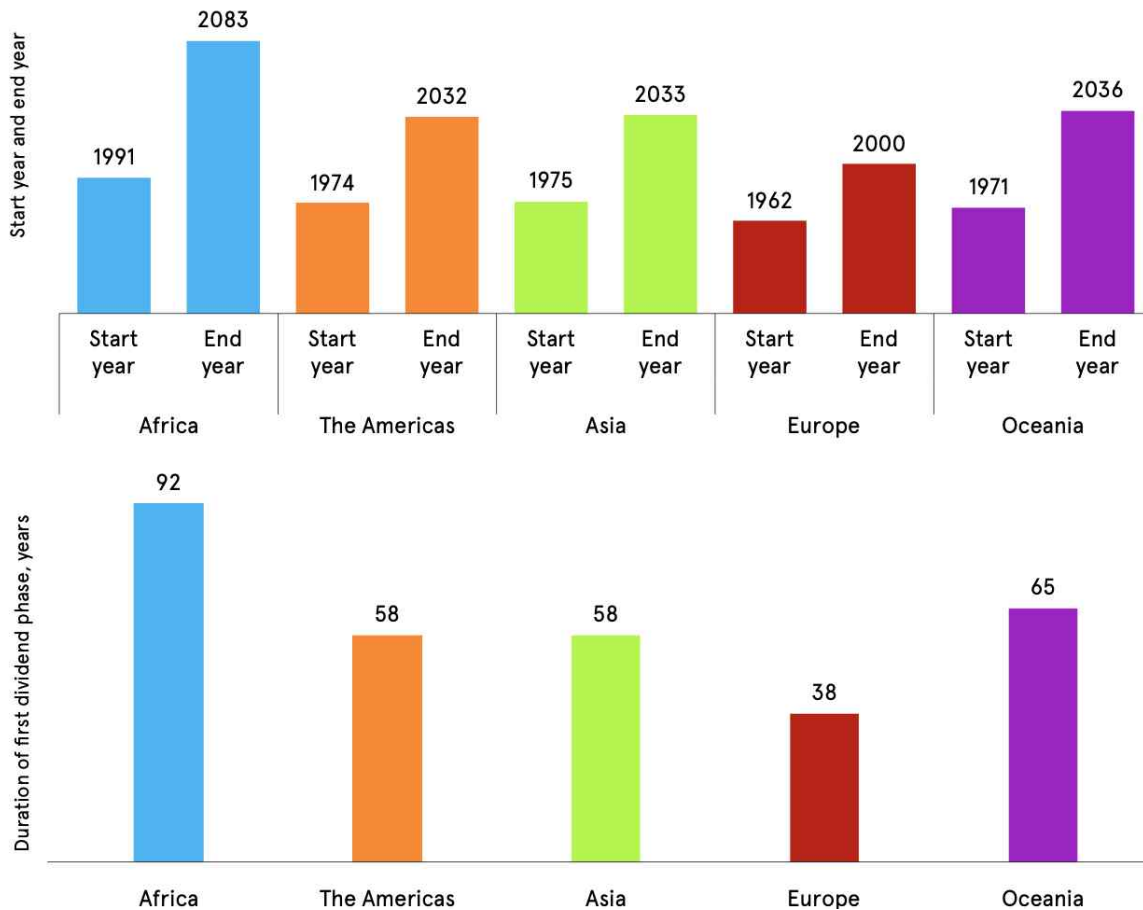
1인당 소득 증가분을 보건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한 인적자본 증가, 물적자본 축적, 기술 혁신 지원 및 성장유도기관 강화에 사용할 경우 첫 번째 인구배당효과는 경제 성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 번째 인구배당효과를 실현하는 것은 또한 노동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한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두 번째 배당효과는 경제의 자본 집약도 증가와 은퇴를 위한 생산연령 개인의 저축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전환 후반에 발생할 수 있다. 사람들이 가족이나 정부가 그들의 필요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 한, 생산연령의 막바지에 접어들었거나 정년에 직면한 사람은 자산을 축적할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고령의 생산연령층의 저축 증가는 더 큰 인적,

물적자본 축적, 생산성 및 국민소득 증가를 이끌고, 추가 경제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 노동에 대한 자본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노동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고 두 번째 인구배당효과를 이끄는 "자본 심화" 단계이다. 이 기간은 경제에서 창출된 저축이 인적, 물리적 및 환경적 자본에 생산적으로 투자되는 한 유지된다.

첫 번째 인구 배당의 시기와 기간은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양했다(그림 3.1). 미주,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는 1970년대에 시작되어 2030년대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고령화는 2000년경에 끝난 것으로 추정되는 첫 번째 인구배당효과 단계와 함께 더 일찍 시작되었다. 아프리카에서는 인구배당효과 단계가 1990년대 초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어 2080년대 초반에야 종료될 것이다(Mason and others, 2017).<sup>17)</sup>

<그림 3.1> (상단 패널) 지역별 인구배당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연도(상단 패널), (하단 패널) 첫 번째 인구배당의 평균 기간



출처: Mason and others (2017).

17) 유엔 경제사회부는 세대의 경제 측정 및 분석을 위한 국가이전계정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 방법론은 인구 추세와 경제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그 기초는 전 세계 인구와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60개 국가 및 지역의 소득과 소비에 대한 분석이다. 국가이전계정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은 추정치와 분석을 다른 106개국으로 확장하여 총 166개국으로 늘렸다.



## 2. 나이들은 생산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생산연령인구와 노동력의 규모와 구성 변화는 인구 고령화가 생산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핵심 요인이다. 모든 경제에서 생산 능력은 성장과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주도한다. 이러한 역량은 국가가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방식으로 점점 더 정교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역량, 자원, 기술, 인프라, 기술 역량, 제도 및 지식 시스템을 포함한다(UNCTAD, 2021).

경제 활동은 인구의 연령구조에 따라 다르다. 고령화 사회로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순생산자)의 비율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반면, 노인(순소비자)의 비율은 증가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노동인구가 축소되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인적 및 물질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가져온 생산성의 충분한 증가가 없는 한 총 경제 생산을 감소시킬 수 있다.

### i. 생산연령인구의 규모와 구성

생산연령인구의 증가는 더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조적으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경쟁력을 감소시키며, 노후 부양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가 생활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이려면, 생산연령인구는 자신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생산해야 하며 동시에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공적 및 사적 이전 자금을 지원하고 은퇴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

숫자로 보면 세계적으로 생산연령인구는 2021년 45억 명에서 2050년 54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에서 56%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일어나지만,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변화의 폭이 클 것이다. 2021년 6억 3,900만 명에서 2050년 13억 명으로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도 고령화되고 있어, 특히 육체 노동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에서 생산능력이 더욱 감소할 수 있다. 고령 노동 인구(55-64세)는 2021년 7억 2300만 명에서 2050년 10억 7500만 명, 2100년 12억 1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는 세계적으로 예상되는 고령 노동자 증가의 2/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부터 세기 말까지 아프리카의 고령 노동자 수는 2021년 6300만 명(55-64세 세계 인구의 9%)에서 2050년 1억 6000만 명(15%), 2100년에는 4억 3200만 명(35%)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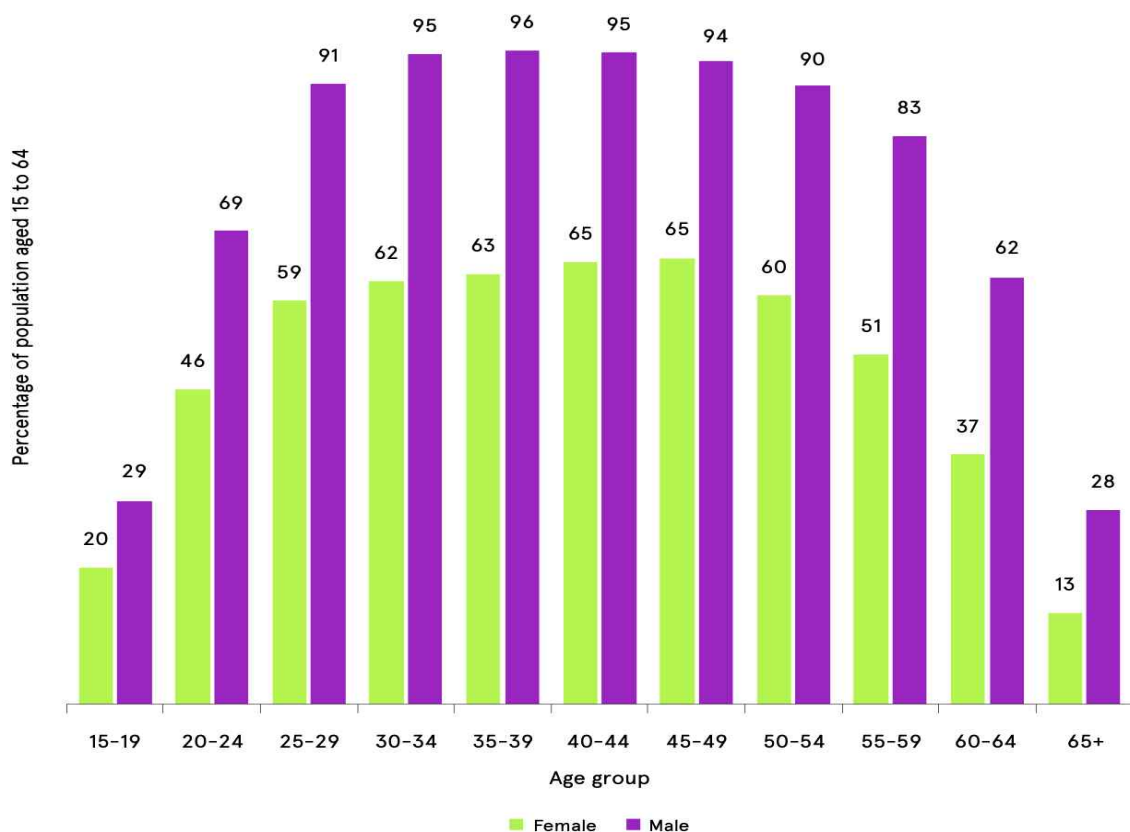
### ii. 노동력의 규모

노동 인구의 감소는 더 높은 노동 참여율에 의해 상쇄되지 않는 한, 경제의 총 산출량과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의한 노동력 참여율은 16세 이상의 생산연령인구 중 취업했거나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인구의 비율이다. 그러나 비공식 부문에 취업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sup>18)</sup> 2019년 전 세계 경제활동참가율은 60.7%로 남성은 74%, 여성은 47%였다(ILO, 2020).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며, 심지어 총 산출량과 소득까지 감소한다. 1990년 이후 전 세계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연령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부분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고, 이러한 추세는 적어도 203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ILO, 2018a). 이는 노동력 감소로 인해 노동력의 임금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들이 비공식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의 경제구조가 변화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의 인구 구조 변화는 전 세계 노동력 참여율 감소를 주도하고 있다.

20세에서 64세 사이의 남성과 여성의 세계 경제활동참여율은 평균적으로 약 30% 포인트 차이가 난다(그림 3.2). 세계적으로 30-5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 이상인 반면 55-5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1%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국가에서 여성의 더 이른 정년과 여성이 노인 가족 구성원들을 돌보는 등 여성의 공식적인 경제활동참여율에 반영되기 힘든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러 규범과 상황은 여성이 공식 노동력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 여성이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비공식이거나 무보수 돌봄 노동으로 현재의 공식적 경제활동참여율에 반영되기 힘들다.

<그림 3.2> 2019년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글로벌 경제활동참가율



출처: Calculations based on ILO (2020).

18) 유엔인구국은 생산가능인구를 20세에서 64세 사이의 개인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ILO는 경제활동참가율을 16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했거나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의 비율로 정의한다. 이는 두 지표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열악한 근무 조건, 건강 악화, 낮은 직업 만족도, 노동시장의 경직성, 생산연령인구의 전반적인 고령화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인 노동자의 노동력 참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또한 연금 제도의 제도적 장치는 고령의 노동자들이 직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선진국에서 일부 노동자들은 공식 또는 법정 퇴직 연령(일반적으로 65세이지만 점점 상향 조정되고 있음) 이전에 조기 퇴직을 선택한다. 이들은 넉넉한 조기연금 혜택을 받으며, 그에 따라 일보다는 여가생활을 선택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채용, 유지 및 재교육에 관한 문화적 규범과 나이 든 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조기 퇴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노인이 더 오래 일하도록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연령 이상에서는 은퇴 후 기본 소득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옵션이 항상 있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노인 4명 중 3명은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 세계 경제활동 참여율에 반영되지 않는다. 2019년 아시아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모든 지역 중 가장 낮았는데(그림 3.3), 이는 비공식 부문 고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이다. 모든 지역에서 55세 이후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그 정도가 덜하다. 아프리카는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도 40%로 두드러진다.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각각 8%와 9%이다. 아프리카의 높은 비율은 적절한 은퇴 혜택이 부족하여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더 오래 일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일정 연령 이상에서는 은퇴 후 기본 소득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옵션이 항상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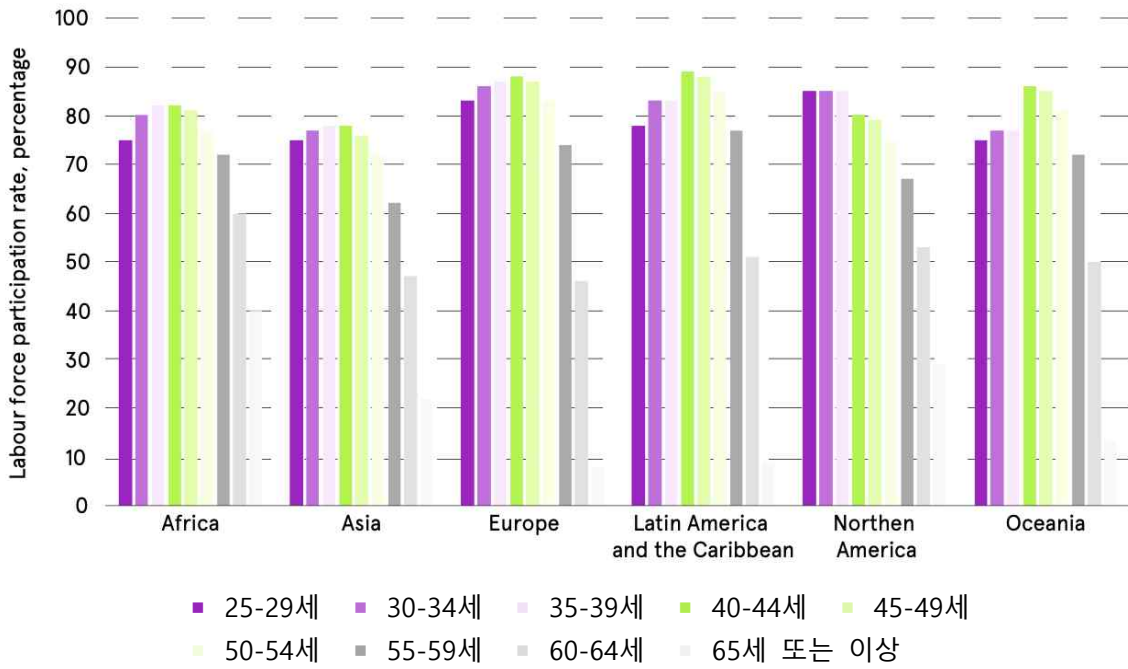
### 3.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소비패턴이 변화한다.

소득, 필요 및 선호도가 삶의 과정에 따라 변화하면서 소비 행동과 한계 소비 성향도 변한다. 이는 사회의 소비 구성과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노년층의 소비 패턴은 국가별로 몇 가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그림 3.4). 하나는 80세 이후에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선진국의 경향이다. 일부 고소득 국가에서는 노년층의 소비가 젊은 성인의 소비에 비해 30% 이상 초과한다. 이는 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스웨덴과 같이 공공 이전 및 복지 시스템이 더 갖춰진 국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덜 확장된 다른 선진국인 호주 및 캐나다와 비교하여 노년에 높은 수준의 소비를 유지한다.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성인 연령에 관계없이 소비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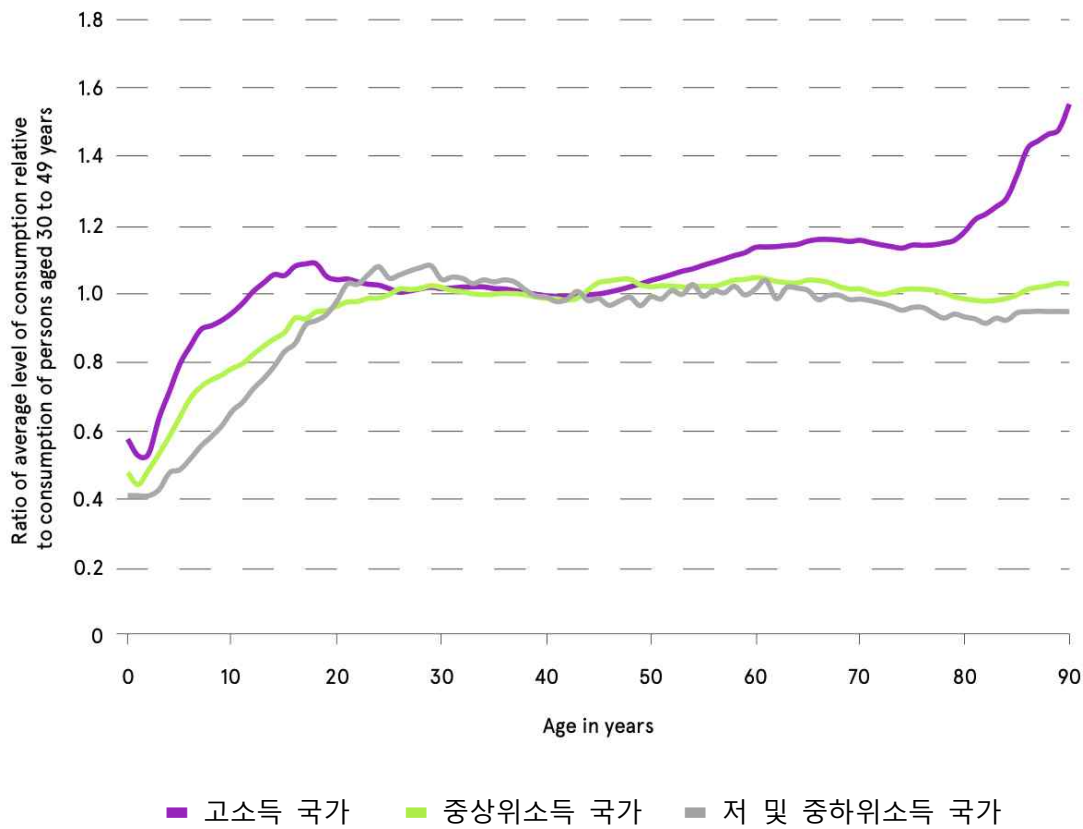
소비 패턴의 여러 요인 중 노화는 소득이나 교육과 같은 요인보다 덜 중요할 수 있다. 동시에 연령대별로 소비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유럽연합의 데이터에 따르면 노인은 젊은 층에 비해 서비스, 주거, 의료에 더 많이 지출하고 교통비에는 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5).

<그림 3.3> 2019년 지역 및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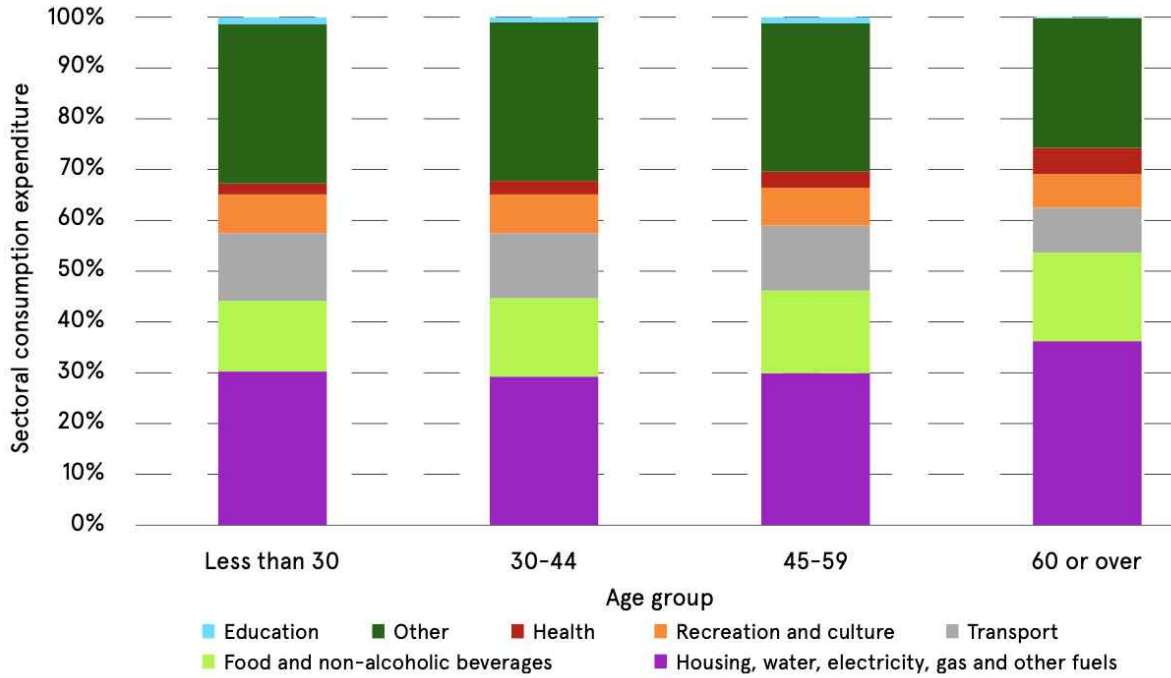
출처: Calculations based on ILO (2020).

<그림 3.4> 2005-2016년 30-49세 인구의 소비 수준 대비 연령별 1인당 소비량



출처: National Transfer Accounts database. <https://ntaccounts.org>

<그림 3.5> 2015년 유럽연합 국가 연령별 소비지출 구조



출처: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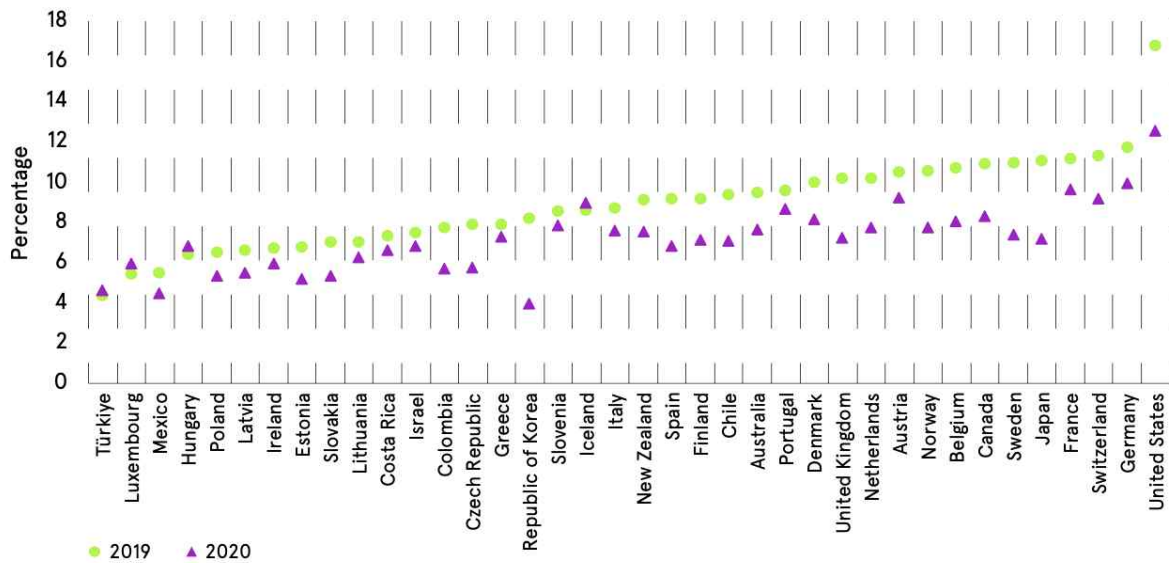
미국의 경우 가구 기준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년층 가구는 생산연령층에 비해 주택, 공공요금 및 연료, 가게 운영, 가사용품, 건강관리에 더 많은 소득을 지출하고 있다. 주류, 의류 및 서비스, 담배 및 흡연 용품, 보험 및 연금에는 훨씬 적게 지출한다.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개인의 다양한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생애주기 동안 개인 가구가 소득 상황뿐만 아니라 실제 습관과 필요에 따라 소비 행동을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toever, 2012, p. 3). 중국의 소비 패턴에 대한 데이터는 젊은 가구와 비교하여 고령 가구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지출을 보이는 두 가지 범주, 즉 의료와 주거에 대한 지출을 나타낸다. 소득 하위 5분위에 속하는 고령 가구의 경우 식품 소비가 젊은 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다(Khan, 2022).

연령 구조와 소비 패턴은 향후 수십 년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Juselius and Takats, 2016), 물가 상승의 부담이 연령대별로 공평하게 분배되지는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과 2017년 사이에 온라인 상품의 인플레이션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동등한 상품의 인플레이션보다 매년 최소 1% 포인트 이상 낮았다(Goolsbee and Klenow, 2018). 이러한 경향이 계속 유지된다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하는 경향이 있는 고연령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물가에 직면할 수 있다(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효과는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은 고소득층에서 더 일반적이며, 이는 연령과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일부 부유하지 않은 노년층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62세 이상의 노인을 기준으로 혼자 살거나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계산한 결과, 노년층이 더 높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지수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년층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일반인보다 약간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Stewart, 2008). 많은 국가에서 연금 혜택을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특히 중요하다. 이 지수가 노년층의 생활비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정책 개혁이 없으면, 인구 고령화는 노인 관련 공공 지출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GDP 대비 전 세계 의료비 지출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약 8조 3천억 달러에서 2019년 13조 4천억 달러로 증가했다(구매력 평가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2000년 이후 공공보건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6). 이는 단순히 인구 고령화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또한 건강에 해롭고 앓아서 생활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유럽연합은 2013년과 2060년 사이에 의료 및 장기돌봄에 대한 공공 지출이 각각 GDP의 0.7%에서 1.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Nerlich and Schroth, 2018). 신흥 경제국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는 공공 및 민간 의료 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Zhou and others, 2020).

<그림 3.6> OECD 국가의 GDP 대비 건강에 대한 총 연간 지출



출처: OECD.Stat. <https://stats.oecd.org/>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의료 지출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부양비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1인당 의료 지출에 큰 영향을 받는다(Khan, 2022). 그러나 그 효과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단순하지 않다. 노인의 수와 그들의 건강 상태 모두가 노화와 의료 지출 사이의 관계를 결정한다. 또한 교육 수준은 노년층의 건강 개선과 의료비 지출 감소로 직결된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장기 투자는 의료 예산에 상당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Borrescio-Higa and Valenzuela, 2021).

그러나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연금, 의료 및 장기돌봄 비용의 증가는 개인과 거시 경제 모두에 문제를 야기하여 노년층의 빈곤과 불평등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고령화의 영향은 의료서비스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평균 의료비는 사망까지의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지만 연령과는 그리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았다(Miller, 2001). 이는 부분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새로운 치료법을 사용하고 임종 시 치료에 대한 제한된 옵션을 제공하는 의료 산업에 기인한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연간 총 보건 예산의 거의 10%가 매년 사망하는 1% 미만의 사람들에게 제공된다(Normand and others, 2021).

#### 4. 노년층의 소비 재정은 자원 재분배에 달려 있다.

자원을 재분배하는 시스템이 균형 있고 지속가능하다면 특정 연령대의 적자를 포함한 생애 과정 전반에 걸친 소득 및 소비 패턴은 거시경제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적절한 개인 저축과 연금은 노년층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연금, 의료 및 장기돌봄 비용의 증가로 인해 개인과 거시경제 모두에 문제를 야기하며 고령층의 빈곤과 불평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Pandey and others,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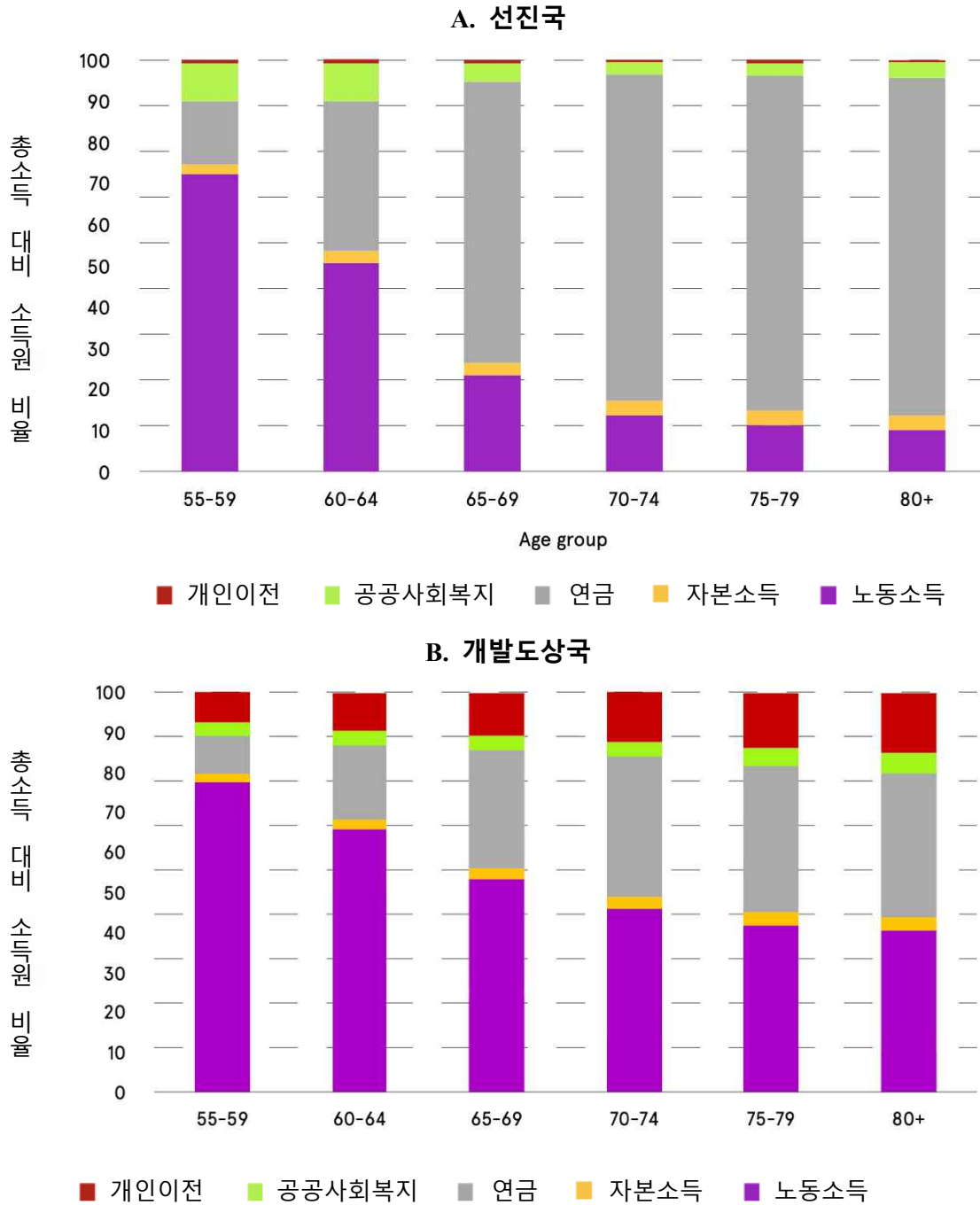
##### i. 자금의 출처

노인의 소비 자금 조달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다. 주요 재원으로는 개인의 근로, 저축 및 기타 자산, 사적 및 공적 이전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연금과 의료를 포함한 공적 이전 시스템이 노인의 소비 수요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한다. 공적 이전 시스템이 제한적인 개발도상국에서는 노인이 더 오래 일하거나, 젊을 때 축적한 자산에 의존하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다(그림 3.7). 공적 이전 시스템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저소득 국가에서는 노인이 사적 및 가족 이전보다 자신들의 자산에 더 많이 의존한다. 인도에서는 자산의 재할당을 통해 노인의 소비 수요의 95%를 충족한다. 동아시아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역할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가족의 부양이 여전히 중요하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 발전과 인구통계학적 전환 단계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노인의 소비를 위한 자원 조달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노인은 주로 연금 혜택을 통해 멕시코의 노인보다 훨씬 더 많은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멕시코인은 58세까지 공공 혜택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브라질인은 52세에 공공 이전의 순 수혜자가 된다. 브라질 사람들은 노년기 내내 넉넉한 연금 혜택을 받는 반면, 멕시코 사람들은 더 오래 일하고 공적 이전보다 자산 소득을 통해 스스로를 부양하는 경향이 있다(Lee and Mason, 2011).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금에 대한 총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GDP 대비 연금 지출은 1970년대 약 7%에서 2010년 8%로 증가했다. 2050년까지 이들 국가의 공적 연금 지출은 GDP의 1-2.5% 증가하여 평균 9.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Amaglobeli and others, 2019). 유럽 연합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만으로도 2013년부터 2060년까지 연금 지출이 GDP의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Nerlich and Schroth, 2018).

<그림 3.7> 연령대별 소득원



출처: Calculation based on the Luxembourg Income Survey (LIS) Database, latest year available. (참고 [www.lisdatacenter.org](http://www.lisdatacenter.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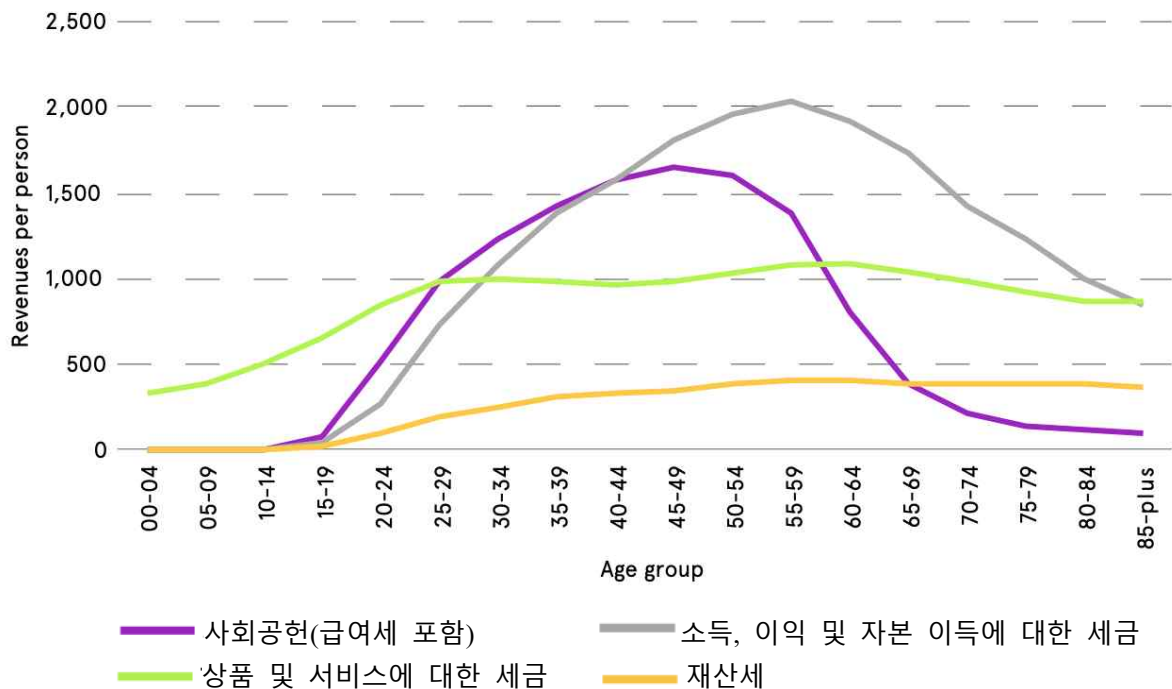


ii. 정부 수입에 미치는 영향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의 잠재적 감소와 노동 생산성에 대한 불확실한 영향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정부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수입은 납세자 수와 소득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체 인구보다는 생산연령 또는 취업 인구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세금과 사회적 기여는 생애 과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는 재정 수입의 성장을 위태롭게 하거나 둔화시킬 수 있다.

고령화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는 모든 소득원이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 고령화가 더 진행된 국가에서는 노동시장과 연계된 사회 공헌과 소득, 이익,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어 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이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Cylus and others, 2019).

<그림 3.8> 유럽, 아시아 및 미주 지역 일부 국가의 생애주기별 1인당 세금 및 사회적 기여



출처: Cylus and others (2019).

참고: 수익 유형은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태국, 우루과이, 미국 등 6개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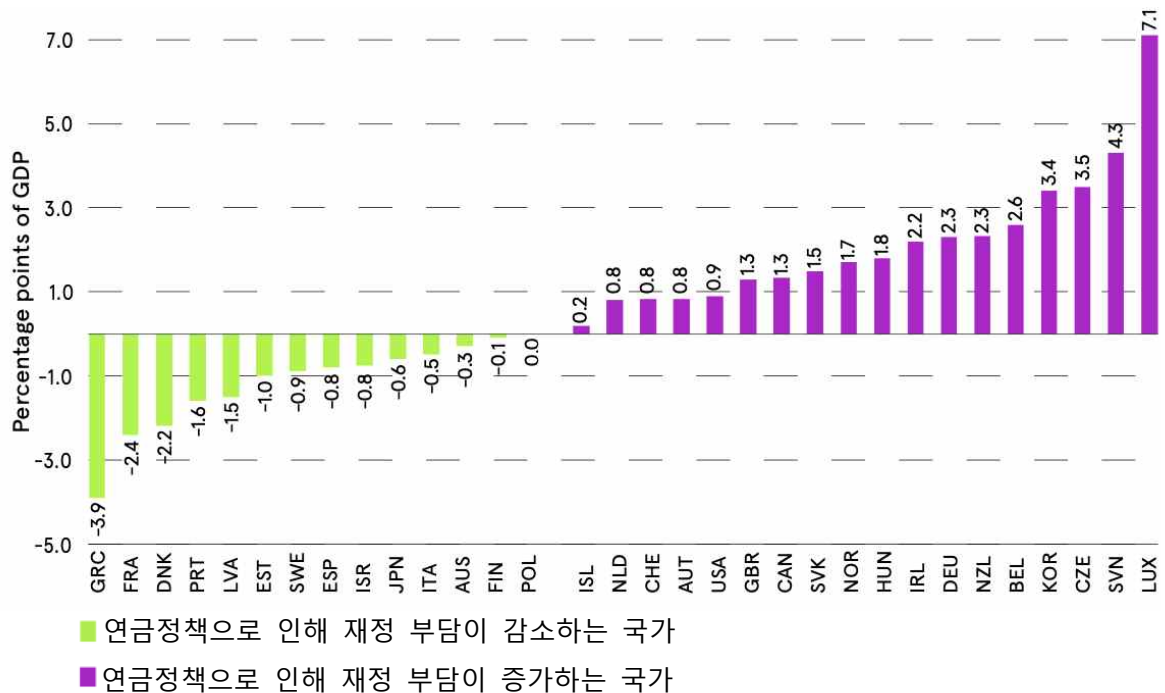
<그림 3.8>은 인구 고령화가 다양한 유형의 세입과 세원의 잠재적 변화에 대한 연령별 프로필을 간략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는 고령층이 더 건강하고,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더 오래 일한다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가 정부 수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이러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효과에 달려 있다.

노동력 감소는 정부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슬로베니아에서는 2016년 전체 인구의 66%였던 생산연령인구가 2040년에는 58%로 감소하고 고령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정부 세입이 GDP 대비 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Colin and Brys, 2020). 독일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2035년까지 연간 소득세 수입은 2016년에 비해 약 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Beznoska and Hentze, 2017).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최상위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대한 한계세율 인상과 같은 세제 변경으로 상쇄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는 과세 대상인 민간 소비의 감소와 의료 등 특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 부가가치세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고령 가구의 소비세 부담이 가장 낮기 때문에 해당 연령대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자본, 재산 및 기업 소득에 대한 세금 수입은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 국가에서는 노인의 자산 축적으로 인해 이 부분에서의 세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

OECD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를 상쇄하기 위한 세수 증대 정책이 없는 경우, 선진국과 신흥국의 공공부채 수준이 향후 40년 동안 지속 불가능한 정도로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uillemette and Turner, 2018; Rouzet and others, 2019). 이 시뮬레이션은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함께 이미 법제화된 정년 연장, 연금 시스템 안정화 장치, 조기 퇴직 조항의 단계적 폐지, 그리고 급여 방식 변경 등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한 결과다. 그러나 연금 약정의 차이로 인해 상당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그림 3.9).

<그림 3.9> 2018-2060년 OECD 32개국의 연금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의 변화(GDP 대비 비율)



출처: Guillemette and Turner (2018).

참고: 이러한 변화는 2018년에서 2060년 사이에 추가 연금 비용을 상쇄하고 2018년 가치에서 GDP에 대한 공공 부채를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재정 수입을 반영한다.

## 5. 시간 경과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적응

고령화와 더불어 인구 증가가 안정되며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인구 변화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고령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에 대한 자본 축적과 투자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자본 집약도가 높아지면 생산성이 높아지지만, 이 효과의 크기는 국가마다 다르며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생산연령층의 퇴직저축은 국내외 자산의 자본축적과 투자에 기여하여 국민소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고령화 인구가 다른 소비 성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총수요의 성장이 둔화될 경우 경제에 대한 총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Aksoy and others, 2019). 건강 돌봄과 같이 자본집약적인 성격이 덜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변화는 자본투자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Lee, 2016). 따라서 고령화는 국가들이 디지털화, 물질 및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경제의 녹색화 등 구조적인 경제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을 강화시킨다.

고령화는 특히 특정 능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생산성의 궤적을 바꿀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업무가 디지털 도구와 기술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면서 관련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부족한 고령의 인력은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은 기술력을 갖춘 고령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더 나아가 노인들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식을 갖추기 시작했다. 따라서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이러한 요인의 결합 효과에 따라 달라진다.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방법 중 하나는 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경제활동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미 자동화와 인공 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노동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일부 데이터는 어떤 고령화된 선진 경제국에서 자동화에 대한 추가 자본 투자가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Acemoglu and Restrepo, 2020).

그 밖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자원, 식량 생산, 에너지 사용, 오염에 대한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Clements and others, 2015). 가장 분명한 영향은 아마도 천연자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자원에 대한 수요 변화에 있다(SDG 목표 12.2). 이것은 생산이 자본 집약적인 산업 및 방법으로 이동하고 소비가 물질 집약적인 상품에서 건강 및 여가 활동으로 이동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이다. 노년부양비가 높은 국가들은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s: 사람이 사는 동안 자연에 남긴 영향을 토지의 면적으로 환산한 수치)이 적다.<sup>19),20)</sup>

19) 생태발자국은 개인, 인구 또는 활동을 통해 소비하는 모든 자원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흡수하는데 필요한 토지와 물의 면적(헥타르)을 측정한 것이다.

20) 인구 고령화는 또한 난방과 냉방의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할 때 에너지 발생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화가 다른 지속가능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생산 및 공급망에 따른 1인당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음식물 손실을 줄이는 기회를 제공한다(SDG 목표 12.3). 그리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재활용 및 재사용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SDG 목표 12.5). 인구 고령화는 또한 경제 성장 회계에서 무급 돌봄 노동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 이 문제는 아래 <박스 3.1>에서 다룬다.

**<박스 3.1> 무급 돌봄에 대한 회계는 고령화 사회를 다루기 위한 정책에 도움을 준다.**

국제노동기구(ILO, 2018a)는 가정을 위한 무급 돌봄 노동이 연간 164억 시간의 노동시간을 차지하며, 이는 약 20억 개의 일자리에 해당한다고 추정한다. 32개 개발도상국과 24개 선진국(총 56개)의 표본을 기반으로 한 유엔 SDG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인구 고령화 단계에 따라 국가별 무급 돌봄과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의 비율에 상당한 성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통계학적 전환의 초기 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은 평균 17.3%의 시간을 무급 돌봄 및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반면, 대부분 더 고령인 선진국에서는 17.1%를 할애한다. 대조적으로 고령화 사회의 남성은 평균 8.7%로 무급 돌봄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 남성의 5.8%보다 높다. 두 경우 모두 남성의 몫은 여성의 몫보다 훨씬 낮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현재 무급 돌봄 노동 시간의 4분의 3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뿌리 깊은 성 불평등을 반영한다(ILO, 2018a).

경제회계에서 무급 돌봄 노동을 무시하면 개인의 웰빙과 시간 가치를 부정확하게 평가하게 된다(OECD, 2014; Lequiller and Blades, 2014). 보다 나은 회계는 무급 돌봄 노동의 총량과 그 분배를 모두 파악하는 것이다. 돌봄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돌봄 업무의 질을 평가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은 돌봄 노동의 경제적 측정에서 사람들의 웰빙의 측정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GDP를 넘어서(beyond GDP)” 운동의 목표와 나란히 한다(Stiglitz, Sen and Fitoussi, 2009). 현재 낮은 질의 돌봄이 제공되기 있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를 통해 돌봄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은 고령화 국가가 직면한 이슈이다.

정책 측면에서 무급 돌봄 노동의 불충분한 측정은 성별에 따른 노동력의 차이를 분석하지 못하게 하며(예: 노동력 참여, 임금 및 일자리의 질),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제한한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의 실제 규모를 모호하게 하며, 무급 돌봄인(주로 여성)을 노동시장에 완전한 참여자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제한한다.

고령화로 인해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부정적인 경제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급 돌봄 노동은 GDP에 포함되지 않고 무급 돌봄 노동자는 노동시장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계정에는 무급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과 남성의 생산성이 완전하게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이 비생산적이라는 암묵적인 가정을 배제하고, 더 많은 여성의 노동력 참여를 통해 성별 격차를 줄임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은 잠재적인 정책의 영향을 과장할 가능성이 높다. 성장에 대한 잠재적 부양의 한계를 나타내는 상한선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더 정확한 추정치는 주로 여성인 무급 돌봄인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측정을 요구한다.

## B. 고령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소비 및 생산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인구 고령화로 인한 기회와 도전은 경제의 생산과 소비 측면 모두에 대해 효과적이고 공정한 전략을 채택하는 것을 보장한다. **고령화는 노인들의 전문 지식과 기술로부터 더 넓은 경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경제 발전 의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 1. 여성과 고령 노동자는 노동시장에 가치를 높인다.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여성, 고령 노동자 및 전통적으로 공식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었던 기타 집단의 노동 참여율이 그에 따라 증가해야 한다. 이는 특히 고령화 국가에 적용된다. 노동력에서 여성의 더 큰 역할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많은 국가의 경제 구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모든 연령대의 남성들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문제들 중에서도 뚜렷한 성 역할과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고 있다. 여성의 참여 증가는 예상되는 노동력 규모의 감소를 늦출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 입안자들의 핵심 과제는 여성의 일과 가정이라는 상충되는 요소의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다. **고용 및 사회정책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남아 경력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에는 보조 육아, 모성 및 부성 휴가, 세금 공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고령 노동자의 더 큰 참여를 위해서는 직장은 직업 안전 및 보건, 근로시간 및 조직에서 변화를 가해야 하며, 더 유연한 근무 시간과 규정, 세금 제도,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강화된 지원을 적용해야 한다. 고령 노동자의 경우, 그들의 노동을 방해하는 연금 및 사회 이전 프로그램의 왜곡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오래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생산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령에 따른 차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는 모든 수준의 노동시장에서 노인들의 일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과제이다(United Nations, 2021b).

178개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역사적 요인에 대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노동력 참여의 성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상당하다.<sup>21)</sup> 이 분석은 노동 생산성

21) 이는 2022년 4월 유엔 경제사회부 개발연구부에서 발표하지 않은 내부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향상과 여성의 노동력 참여의 본질적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생산 연령인구의 약 3분의 1이 노동력 밖에 있으며, 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 사이에는 20% 격차가 난다(그림 3.2). 이 격차는 아시아에서는 31.2%로 높고 북미에서는 8.7%로 낮다.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참여와 확대는 인구 고령화 국가에서 1인당 GDP를 높이고 경제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성별 격차를 좁히면 전 세계 1인당 GDP가 30% 더 늘어날 것이다. 사실상 이 금액은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전 세계적 기회 비용을 나타낸다.

유럽에서는 입법화된 연금개혁, 특히 더 높은 정년과 여성과 노인의 예상되는 고용률 증가를 예상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2019년에 62%였던 55-64세 노동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70년까지 7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의 경우 훨씬 더 큰 증가가 예상되어, 남성의 비율과 같아질 전망이다(European Commission, 2021a). 이러한 전망은 또한 고용률이 2019년 6.8%에서 2070년까지 5.8%로 장기적으로 개선되고 실업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국가에서는 정년 규정을 완화하고 보다 유연한 근무 방식을 장려함으로써 GDP 성장률을 평균 2.5% 추가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의 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OECD 프로젝트는 향후 30년 동안 1인당 GDP를 최대 19%까지 향상시킬 것이다 (United Nations, 2021c).

**모든 사회는 고령 사회로의 인구 변화를 포함하여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의 교육과 기술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2. 노동 생산성 향상은 기술 투자에 달려 있다.**

평생학습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 생산성은 나이 든 노동자들의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노력이 없다면, 평균 신체적, 인지적 능력의 감소로 인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된 노동력은 기업이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은 궁극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결정할 것이다.

모든 사회는 고령 사회로의 인구통계학적 전환을 포함하여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의 교육과 기술에 투자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박스 3.2). 이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경제 구조를 변화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구로서 디지털 및 녹색 기술의 적용을 가속화한다.

일본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받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07년 추정치에 따르면, 30년 동안 연간 1인당 소득 증가율을 2% 유지하려면 노동 생산성은 연간 2.6%씩 증가해야 한다(United Nations, 2007). 정도는 약하지만, 독일, 이탈리아, 미국과 같이

고령화된 사회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보인다. 이 모든 경우에서 필요한 생산성 증가는 역사적 기준으로는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연간 1인당 소득 증가율 2%는 과거에 달성한 평균보다 낮다. 그러나 약 50년 동안 연간 2-2.5%의 생산성 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기술 진보와 혁신을 자극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박스 3.2> 인구통계학적 전환기의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는 방법**

고령화가 소득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려는 국가에서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개선을 위한 필요한 작업은 노동력 참여의 성평등 달성, 법정 퇴직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 그리고 국제 이주 수준 유지 또는 증가에 달려 있다.

세계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 United Nations, 2019b)에서 예측한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고려하여 소득증가의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노동생산성 증가를 추정했다. 연간 소득 증가 목표는 2020-2050년 사이에 OECD 국가와 그룹 평균보다 더 높은 소득을 가진 기타 국가들에 대해 연간 2%씩 증가, 그리고 기타 국가들의 경우 2050년까지 OECD 평균과의 소득 격차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세 가지 요소에 대해 대안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목표 소득 성장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정했다.

평균적으로 국가 전체에 걸쳐 노동 참여에 대해 성별 평등을 달성하고, 은퇴연령을 높이고, 기존 이주 흐름을 유지하면 2020-2050년 동안 위의 목표소득증가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연간 노동 생산성 성장률을 각각 9.5%, 6.7%, 1.0% 또는 총합하여 17.2% 낮출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각 지역의 다른 발전 조건을 반영한다(그림 3.10). 세 가지 요소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10개국은 필요한 노동 생산성 성장이 평균 4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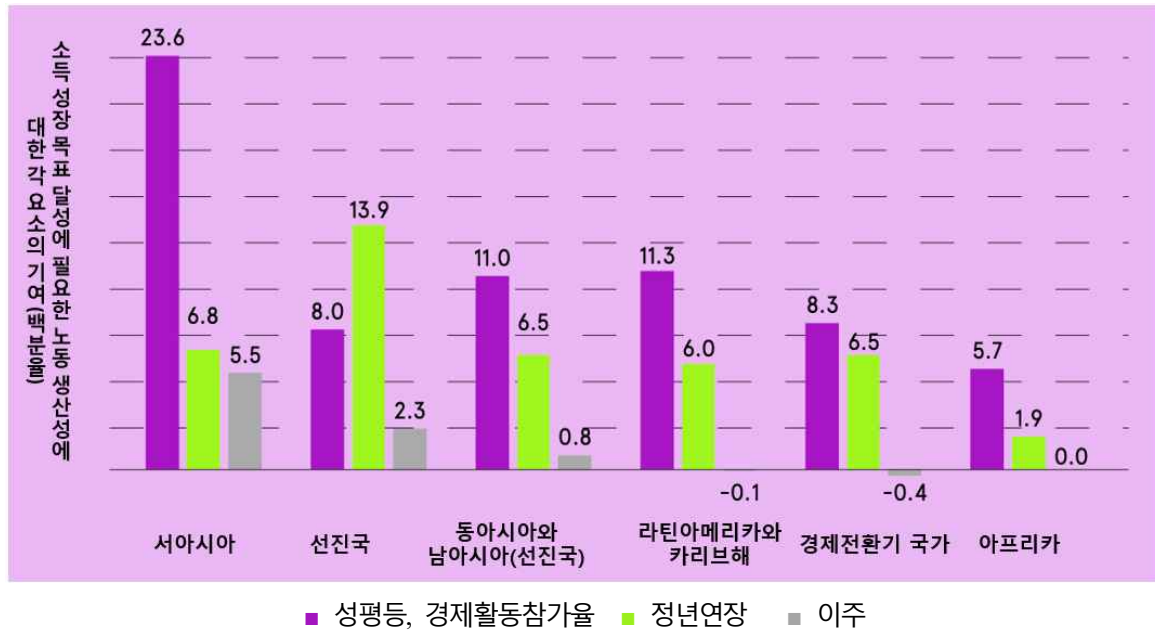
세 가지 요인 중 노동력 참여의 성평등 달성은 113개 개발도상국과 54개 선진국으로 구성된 167개 표본 중 99개 국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정년 연장이 뒤따르는데, 이는 67개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중 절반은 선진국이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모든 국가 중에서 단 한 국가만이 다른 두 가지 요인보다 지속적인 이주(이주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출산율을 높이려는 노력은 2020년과 2050년 사이에 1인당 소득 증가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산율의 증가는 인구 고령화를 늦추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생산연령인구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즉각적으로 부양해야 할 자녀의 비율을 높여, 더 큰 노동력이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제한할 수 있다.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는 목표소득증가를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팬데믹 이전을 기준으로 노동 생산성 성장을 가속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이 포함되며, 이는 국가가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긍정적 추세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평균적으로, 연간 3.2%의 노동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

<그림 3.10> 2020-2050년에 요구되는 연간 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 달성에 대한 세 가지 요인이 미치는 영향



참고: 지역은 세 요인의 평균 합계가 가장 큰 서아시아에서 시작하여 각 요인의 평균 합계를 기준으로 정렬했다. OECD 국가 및 OECD 평균보다 소득이 높은 국가의 2020-2050년 연간 성장률은 2%이다. 다른 나라들의 소득 목표는 2050년까지 OECD 평균과의 소득 격차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 3. 기술 혁명의 잠재력 활용

오늘날 세계는 새로운 기술 변화의 물결 속에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의 일과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과 같은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수천 개의 일상적인 업무를 떠맡고 있다. 많은 분야에서 신기술은 노동력을 보완하기보다는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일과 기술의 변화, 시장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일본과 같은 고도로 발전된 일부 고령화 국가에서는 제조 및 서비스 분야에서 인간 노동력을 대체할 신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박스 3.3).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경제의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 신기술은 경제적 생산성과 서비스 제공을 개선할 수 있지만, 디지털화된 비즈니스 모델은 노동권과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정책 결정의 최우선시 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제조업과 같은 일부 산업에서는 자동화된 로봇이 이미 생산 라인에서 사람을 대체했다(Bloom, McKenna and Prettner, 2018). 광산 노동자는 하루에 한 번만 주유하는 자율 주행 트럭을 사용한다. 3D 프린터는 보청기와 같은 맞춤형 의료 제품을 포함하여 이전에 많은 노동 투입이 필요했던 제품 생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3D 프린팅은 시골 지역의 부티크 제조를 위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기계 학습과 같은 기술은 다른 많은 용도 중에서도 질병을 진단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의 추세는 지난 10년 동안 "긱 경제(gig economy)"의 급속한 증가와 같은 작업 패턴의 변화를 이끈다. 앞으로 많은 국가에서 노동 인구의 규모가 감소하고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민간과 공공 기관은 작업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를 통해 계속해서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향후 20년간 9-47%의 일자리가 자동화될 수 있다(Frey and Osborne, 2017; Arntz, Gregory and Zieran, 2017). 국제 로봇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은 2017년 전 세계적으로 3백만 대의 로봇이 작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들은 매년 14%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100만 대에 이를 수 있다(Bloom, McKenna and Prettner, 2018).

빠른 속도의 혁신과 기술 개발은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특히 중요한 도전 과제이다. 그들은 이러한 변화를 관리하고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래 경제에 뒤쳐질 위험이 있다. 공통적이고 시급한 우선 순위 중 하나는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기술의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기 아동 발달, 건강 및 사회적 보호를 포함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노인의 기술과 지식에 투자하고 그들이 기술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선진국은 이미 자동화로 인해 상당한 수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다. 기술은 또한 저숙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로봇은 목욕, 옷 입기, 식사, 통신 및 운송과 같은 일상적인 작업을 지원하면서 노인을 돌보는 역할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다(Pruchno, 2019). 신기술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고용과 불평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4. 출산을 지지 정책은 여러 결과를 가져온다.**

인구 고령화가 공공 재정과 생활 수준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오랜 우려가 있다. 40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체 수준보다 훨씬 높은 출산율이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 수준에 가까운 출산율은 거시 경제와 평균 생활 수준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구조가 가족과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경제적 부양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저소득 국가에서는 1.8명, 중상위소득 국가에서 2.0명, 고소득 국가에서는 2.3명으로 추정된다(Lee and Mason, 2014).<sup>22)</sup>

22) 경제부양비율은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한다.

많은 유럽 사회는 인구 고령화를 늦추고 재정적 압박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및 기타 지역의 지난 정부 대부분은 출산율 감소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정책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출산 보너스, 가족 수당, 세금 감면, 육아 휴직, 보조금 지원, 보육 및 유연한 근무 일정을 통해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출생 장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는 혼재된 결과를 보여준다. 2015년 유엔 전문가 회의는 높은 수준의 임금대체와 적당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출산, 육아 및 육아 휴직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United Nations, 2015a).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들을 위한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운 고품질의 보육 및 교육 서비스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현금 혜택에 대한 반응은 일부 엇갈린다.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 퀘벡의 현금 보조금, 프랑스의 출산장려금, 호주의 출산장려금, 독일의 출산 휴가, 이스라엘의 아동 수당 프로그램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Lee, 2022). 다른 연구에서는 그러한 이점에 대한 유의미한 출산율 반응을 발견하지 못했다. 효과는 대체로 국가, 프로그램 유형 및 연구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작은 혜택은 출산 결정에서 다른 강력한 요소들에 비해 출산율 상승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 **<박스 3.3> 일본에서 고령화는 산업을 재편하고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킨다.**

일본의 인구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 1억 2,600만 명에서 1억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2040년까지 노동 인구가 6,500만 명에서 5,200만 명으로 20% 감소할 수 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29%에서 2040년 3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 부족이 거의 확실해짐에 따라 이미 경제적 변화가 촉진되었다.

예를 들어, 인구 통계의 변화로 인해 일본 기업은 디지털화를 가속화 해야 했으며 산업 구조와 정책의 대대적인 재구성을 이루었다. 일본은 이제 독일과 함께 디지털 제조의 최전선에 서 있다. 산업용 로봇 공학과 머신 기술 분야에서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6년 30%에서 2019년 50%를 넘어섰다. 2020년까지 일본 이외의 공장과 사무실은 제조업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창출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을 관리하는 것은 이제 일본 기업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식의 핵심이다. 그 결과 제조업 수출의 GDP 점유율이 1995년 8.8%에서 2020년 18%로 증가했다. 수직 농업과 새로운 농업 기술은 농업을 변화시켰고 천연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2020년에 68세를 넘어선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 증가는 부분적으로 농업의 재창조를 주도했다.

일본의 디지털 전환은 고용이 은퇴를 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기업들이 직면한 “승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직업 이동의 급격한 증가, 독립 계약자의 수 및 이중고용 시스템은 비정규직 및 비공식적인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용 범위를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존 연금 시스템에 대한 부족함을 드러냈다. 2020년 3% 미만의 낮은 실업률은 기술 변화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한다. 또한, 교육 개혁과 재교육을 위한 주요 정부 및 민간 투자는 노동자들이 중대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 있다.

## 5. 국경을 넘어서: 새로운 투자 흐름을 위한 원동력

가속화된 생산 아웃소싱과 강화된 글로벌 가치 사슬은 빠르게 고령화되는 국가가 감소하는 노동 인구의 경제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고령화 국가는 국내에서 가능한 것 이상으로 투자를 다양화하고 잠재적으로 더 높은 평균 수익률을 달성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고령화는 중상위 소득 및 고소득 국가에서 노동력이 풍부한 일부 아시아 및 아프리카와 같은 중하위 및 저소득 국가로의 국제 투자 흐름을 가속화한다. 이러한 자본 흐름은 노동 생산성과 임금을 높이고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만약 국가들이 역사적 인구 통계학적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올바른 정책을 채택한다면, 아프리카는 21세기 후반 세계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이 될 잠재력이 있다.** 정책을 통해 좋은 노동자를 육성하고, 아프리카 대륙에 외국인 직접 투자와 기술 확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경제 및 구조 개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혁명은 아프리카에 공공 및 민간 부문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고 경제 성장의 주요 촉매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 환경오염이 심한 제조업 부문의 급속한 확장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구조적 변화를 피하고 대신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와 같은 서비스의 성장에 더 중점을 둔 보다 친환경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고 제조 및 서비스 일자리가 연안 지역으로 쉽게 이동함에 따라 잉여 노동력이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확장될 것이다. 교육과 기술의 지속적인 개선과 녹색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준비는 아프리카와 같은 노동 잉여 경제를 (특히 경쟁력 있는 임금을 고려할 때) 생산 및 글로벌 가치 사슬의 허브로 만들 수 있다. 인적 자본과 물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가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핵심이 될 것이다.

### C. 신중하고 적절한 정책은 성공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출산율을 낮추는 상황은 경제를 관리하는데 기회와 도전을 제시했다. 기회를 활용하고 도전을 극복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인구통계학적 전환의 다양한 단계에서 정부 정책에 달려 있다. 이들은 생산연령인구 및 노동력의 규모와 구성의 변화가 생산 능력에 대한 고령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 욕구 및 선호도가 삶의 과정에서 변화함에 따라 소비 행동도 변화하며, 이는 정부의 지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건강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특히 여성과 고령 노동자의 노동력 참여 촉진, 노동 생산성 향상, 재정 수입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고령화는 경제 발전 의제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경제 발전은 노인의 전문 지식과 기술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